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제1812호



동장군 가니 최악의 미세먼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광화문 일대가 뿌옇다. 이를 만에 다시 발효된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된다. ▶관련기사 2면 이도근 기자 foto@

가상화폐 규제 관련 정부의 발언

<p>“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p> <p>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p>	<p>“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p> <p>1월 11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p>	<p>“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p> <p>1월 15일 최중구 금융위원장</p>	<p>“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 있는 옵션”</p> <p>1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p>	<p>“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p> <p>1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p>	<p>“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 <p>1월 16일 문재인 대통령</p>
---	---	---	--	--	--

갈팡질팡 가상화폐, 누구 말이 진짜일까

‘거래소 폐쇄’ 두고 부처 옥신각신 중 규제 강화에 글로벌 시장 폭락

것이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 가격은 날을 뛰었다. ▶관련기사 3-6-20면

이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윤영찬 청와대 수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 있는 옵션”(김동연 경제부총리),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낙연 국무총리) 등 갈피를 잡기 어려운 발언들이 쏟아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규제정책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얽히고설킨 배경에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있

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가상화폐를 옹골이 맡기 부담스러워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4일 범정부 가상화폐 합동TF를 법무부 주관으로 바꿨다. 가상화폐 거래 및 취급업자를 잠재적 범죄로 인식하는 법무부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에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그러다 보니 각 부처가 자신들의 안만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반발에 정부 책임이 없지 않은 것이다.

정부 부처가 거래소 폐쇄를 두고 옥신각

신하는 동안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9시 국내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13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해외 거래소의 가격은 1만1000달러 대로 전일 대비 17~20%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 하락 원인은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 데 이어 개인 간 거래(P2P)도 금지할 것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 함께 이들의 투자 역시 위축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스마트폰 카메라 통한 사용자 표정·음성 등으로 앱 분석
삼성전자, AI로 사람 감정 읽을 수 있는 특허 2건 출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특허 2건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 감정을 알아내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런 형식으로 빅데이터를 쌓으면, 향후 AI 스피커 혹은 비서 빅스비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 보이니 혼자 있지 마” 등의 조언을 할 수도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사용자 감정 공유 장치 및 방법’과 ‘앱 리스트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기술 특허를 냈다. ‘사용자 감정 공유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나 대화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해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해 준다.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사용자의 표정, 음성·혈압과 같은 생리학적 생체신호, 키보드 입력 패턴,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종류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행복, 놀람, 화남, 역겨움, 슬픔, 두려움 등)를 인식할 수 있다. 이후 전체 감정 비율과 최근 감정 비율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평소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 있던 사용자가 최근 짜증, 분노 등을 많이 느끼면 전체 감정 비율은 긍정 50%, 부정 50%이고, 최근 감정 비율은 긍정 30%, 부정 70%가 된다.

삼성전자는 “어떤 상대방이 최근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게 된다면, 이를 파악한 지인이 그에게 연락을 취해 감정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 리스트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특허 역시 사용자 생체 정보를 통해 대화 당시 심리 상태 및 감정 정보를 도출해낸다. 감정 정보 변화를 반영해 사용자의 현 심리 상태에 적합한 앱을 추천해 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AI 생태계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AI 비서 빅스비가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8에 처음 탑재한 빅스비를 2~3년 내 TV와 냉장고 등 자사 모든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AI를 통해 사물을 제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 파악을 통한 사람 간의 관계 향상과 AI 비서의 감정 상태에 따른 조언 등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독 오른 정부, 保有稅 칼 빼나

강남 집값 치솟자 ‘신종론’ 김동연 부총리마저 필요성 언급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거론된 ‘보유세 인상’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신종론을 건넨 김동연 부총리도 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16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는 (주장의) 측면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교하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김 부총리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이었으나 연말 “2018년 경

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보유세 조정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관련기사 4면

김 부총리는 또 “강남 4구의 6억 원 이상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며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땅”보다 “땀”이 보살핌을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제도 개선 등 ‘지대(地代) 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11월 관련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강화 논의에 불을 댕긴 바 있다.

추 대표는 “중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 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추진에 불을 붙인 것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강남 4구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상승률의 2.4배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 집값은 하락세인데 강남 4구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가 3.3㎡당 가격이 1억 원 수준까지 오르는 등 과열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곽도훈 기자 soqood@

“투자·일자리 창출”... 김동연 부총리-정의선 부회장 오늘 회동

새해 첫 대기업 간담회... LG그룹 이어 2번째로 현대차 면담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 대기업과의 만남을 현대자동차그룹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대기업 방문 순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 등 시급한 현안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노조 파업으로 사측 추산 1조6000억 원 이상의 생산차질을 빚으며 지난해 일당

협을 최근 봉합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17일 경기 용인의 현대차 이차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부회장 등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났다. 대한상의 건의로 시작된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대기업으로는 지난해 12월 LG그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인사로는 김 부총리와 최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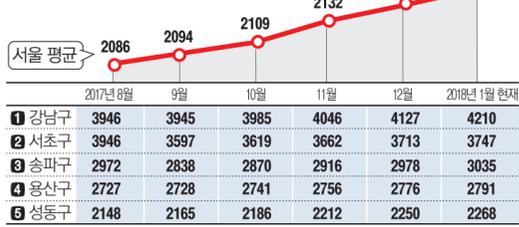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 측에서는 정 부회장과 양웅철 현대차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 등이 자리했다. 협력사 대표로는 이재하 프라코 회장과 정구하 원화정밀 사장 등이 동참했다.

김 부총리 일행은 이날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친환경차 국산 부품 개발 현황을

이정필 기자 roman@
이광호 기자 khlee@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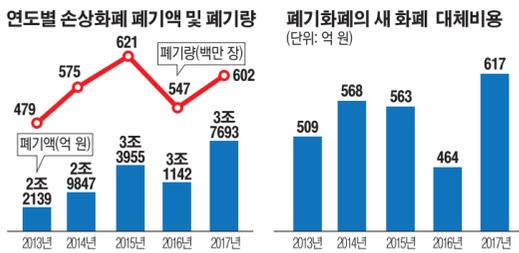
서울 아파트 3.3㎡당 시세 변화 (단위: 만 원)
* 출처: 부동산114



서울 아파트값 급등... 3.3㎡당 2179만 원 '경기도 2배'

서울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경기도와의 3.3㎡당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는 3.3㎡당 시세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25개 구 전역의 3.3㎡당 아파트 매매 시세가 참여정부 시절 형성했던 전고점을 경신했다. 부동산114 시세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179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의 3.3㎡당 1058만 원에 비해 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주택 경기가 불황이던 2013년 말에는 3.3㎡당 각각 1627만 원, 902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경기도의 1.8배 수준이었다. 작년 9월까지도 서울이 3.3㎡당 2110만 원으로, 경기도(1053만 원)의 2배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뒤인 9월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월 현재 두 지역 아파트값 격차가 2배 넘게 벌어졌다. 국민은행이 집계한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8500만 원으로, 경기도(3억2315만 원)의 2.12배 수준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폐기된 손상 화폐 작년 3.8배... 에베레스트산 6배 높이

부패하고 불타고, 세단기에 잘려 못 쓰게 된 돈이 지난해만 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2017년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3조7693억 원, 6억200만 장에 달했다. 이는 전년(3조1142억 원) 대비 6551억 원(21.0%)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은 3조7668억 원(5억3000만 장)이 폐기됐다. 이는 5톤 트럭 99대 분량으로 이를 모두 연결하면 경부고속도로를 79회 왕복할 수 있고, 쌓으면 에베레스트산의 6배 높이에 달한다.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617억 원에 달했다. 2011년 823억 원 이후 6년 만의 최고치다. 주요 손상 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이나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11억6000만 원(2155건, 교환액의 54.7%)으로 전년(4억3000만 원)에 비해 57.9%나 급증했다. 이어 불에 탄 경우가 7억2000만 원(1091건, 33.9%),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2억4000만 원(1491건, 11.4%)이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KT 회장>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다보스서 ICT 인맥 넓힌다” 박정호



23일 글로벌 재계 리더들 모여 新사업 논의·네트워킹 나서
황창규 KT 회장, 'ICT 활용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 홍보
SKT는 8년 만에 수장 참석... 5G·AI 등 첨단기술 비즈니스



국내 대표 통신사 수장인 황창규 KT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연례 총회(다보스포럼)에 나란히 참석한다.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정보통신(ICT) 기술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재계 리더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신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KT에 따르면 황 회장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ICT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WEF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클라우드수밥 WEF 회장 과 면담을 했다. 당시 황 회장은 이날 열리

는 다보스포럼에서 ICT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와 스마트에너지 등 신 사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사업은 황 회장이 공을 들이는 사업 중 하나다. 황 회장은 2016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회의에서 전 세계 800여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황 회장은 "전 세계 휴대폰 사용자 73억 명의 해외 로밍 정보를 분석하면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며 "KT의 ICT 기술을 활용하면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회장은 또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KT는 평창 올림픽의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도 다보스포럼을 찾는다. 박 사장의 다보스포럼 참가는 SK텔레콤 수장으로서 8년 만이다. 따로 발표가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재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신사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 사장은 최태원 SK 회장을 보좌해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SK텔레콤의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소개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숨통 막히는 미세먼지’ 대책 나오나... 국회 특委 시동

관련 부처 참석해 대응상황 점검
오염도 감시 강화·해결방안 논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세먼지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17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 특위)가 이날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파악에 나서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미세먼지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미세먼지 특위 설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

에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장소가 일부 잘못 배치돼 체감 미세먼지 오염도와 측정 결과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를 점검하고 재배치하는 방안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미세먼지 특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 타워 부재와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의제로 다루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2013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는 점과 관련 예산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쓰이는 점도 지적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 주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시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를 방문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조직된 미세먼지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활동 시기는 5월 말까지다. 정용욱 기자 dragon@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세미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및 보완의 방향’ 세미나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주요 역할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도근 기자 foto@

굿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다시, 봄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

아동 1000명 중 275명이 학대를 경험하지만 발견되는 아이는 단 1명... 274명의 아이들은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Gyeonggi-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
김준수 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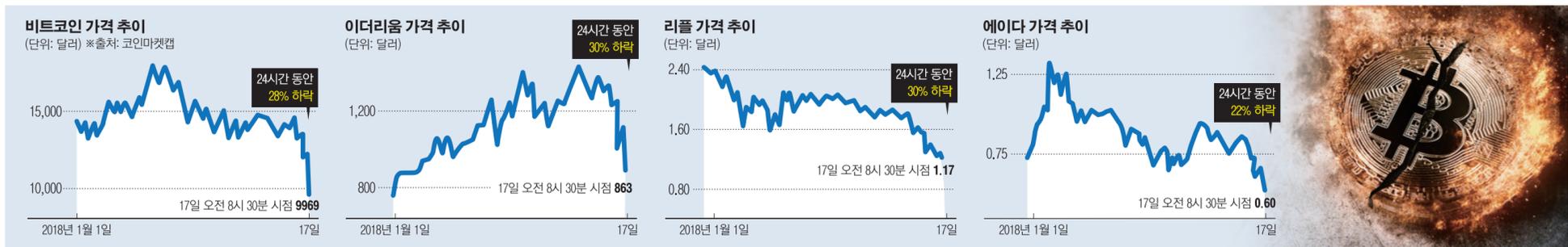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국민감시단'을 검색하세요.

국민감시단 [v] 검색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는 굿네이버스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국민 아동학대예방캠페인입니다.

주최 : 굿네이버스

후원 :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글로벌 가상화폐 시세 ‘와르르’... “한국이 시장혼란 震源地”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이 한국발 악재에 요동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날 한때 각각 심리적 저항선인 1만 달러(약 1065만 원), 1000달러 선이 붕괴했다. 비트코인 저점은 24시간 전보다 28% 폭락한 9969달러였다.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만1000달러 선을 회복했으나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날 중순 1만9800달러까지 치솟고 나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비트코인 한때 1만달러 저항선 무너져 이더리움·리플도 각각 30%·46% 폭 주요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폭락

가상화폐 시총 규모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이날 오전 최대 30% 폭락해 863달러까지 주저앉았다. 코인마켓캡에서 리플 가격은 이날 한때 46% 빠져 90센트 선에서 움직였다. 코인마켓캡은 지난 주 한국 가상화폐 시세가 세계 다른 곳보다 훨씬 높다며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들을 가격 산정에서 제외했다.

미국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최근 가상화폐

가격 몰락의 진원지로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 중단은 여전히 옵션 중 하나”라며 “다만 관계부처 장관들이 먼저 규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 소재 ETK캐피탈의 월 닐슨 애널리스트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가상화폐 시장”이라며 “이 소식은 가격과 투자심리를 강타했다.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업체 문을 닫으려는 가운데 새 악재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을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딕 코바세비치 전 엘스파고

김동연 부총리 “거래소 폐쇄옵션” 발인 외신 “韓정부 규제 강화, 악재로 작용” “그동안 상승 따른 적절한 조정” 의견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며 “나는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 것에 오히려 놀랐다”고 가상화폐 열풍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누군가 비트코인을 살 것으로 베팅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까지 맞았다”며 “그러나 이는 다단계 방식일뿐으로 의미 있는 펀더멘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급등 예측을 적중

시켰던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뱅크의 카이 반-페테르센 애널리스트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로 오를 수 있다”며 “다른 경쟁 가상통화가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일 수 있다”고 낙관론을 유지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 하락은 그동안의 상승세에 따른 적절한 조정으로, 오히려 건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도 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에서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저점을 찍고 나서 금세 낙폭이 줄어들어 다시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 위로 회복됐다. 포브스는 가상화폐의 본질은 분권화에 있다며 한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중단한다 해도 투자자들은 이 자산을 얻을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16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에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혁신 창업 문구의 뜻을 잇는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다. 뉴스시스

文 “현장서 체감 가능한 中企정책 마련”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으로 폐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대책 곧 발표
업체 “최저임금 부담완화 대책을...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침해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격려 만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신규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이 더 활발한 투자 선순환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청와대 본관에서 중소기업계 32명과 만찬을 겸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 분씩 인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기존의 18만 개 사업체에서 앞으로는 66만 개 사업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세 명이, 삼십 명 한도 안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하고자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 시행,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영세기업 피해를 줄이고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확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단체 대표들이 주로 발언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대통령이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참석자들은 전했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원론적인 반응만 들었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기업인들에게 발언할 기회가 많이 돌아가다 보니 단체장들이 제대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해 아쉽다”며 “아직 대통령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한 번도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은 만큼 별도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평범한 중소기업인들의 애환과 애로를 들어주는 분위기여서 정책적인 요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색했다”면서 “그래도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가 개별기업 위주에서 전반적인 생태계 쪽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이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계 현안들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급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스마트공장 지원금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얘기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전효점 기자 gradually@

노란우산공제

iOS 전용 Android 전용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휴양시설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보증이 적용되는 공적 보증상품입니다

내일부터 첫 부처별 업무보고 받는 이낙연 총리 “장관 개성 드러나게...난 조정자役”

유관부처간 업무조정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의 개성과 부처마다의 업무 계획이 잘 드러나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 업무보고를 처음 주재하는 데 따른 각오를 이같이 말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주재별로 진행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총리는 “여러 해석을 하지만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지금은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가시화해서 국민의 삶을 낫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각론의 국면이라 제가 맡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면 대통령 지시 말씀이 부처 업무 결과를 압도하곤 했

다”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국정 과제 가시화 △유관부처 간 업무조정 △정부 혁신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등에 주요점을 갖고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보류에 대해서 이 총리는 “잔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낫다”면서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강남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정리된 정책을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대책 혼선 논란과 관련해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라면서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며 현재까지는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핀테크 스타트업 시장진출 쉽게 유럽처럼 오픈 플랫폼 도입해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국회 토론회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17일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 산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도입한 오픈뱅크와 같은 오픈 플랫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 창업수도 아시아 초연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류 대표는 “유럽의 핀테크 혁신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오픈뱅크 법안’이 발효돼 은행이 보유한 개개인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카카오페이의 신사업으로 오픈뱅크와 크로스보더 결제 및 송금을 소개했다. 이로써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사업 확대의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류 대표는 예상했다.

오픈뱅크 결제 사업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 카드’는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은행계좌에서 충전한 잔액을 이용해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

는 오픈뱅크 결제 수단이다. 류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 이를 이용하면서 화제가 됐다”면서 “카카오페이 외에도 올 상반기 중 QR코드를 활용한 오픈뱅크 결제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크로스 보더 결제 및 송금은 중국을 대상으로 준비 중인데 국내 가맹점들은 알리페이를 통해 전 세계 8억 명의 잠재고객이 생겨난다”면서 “핀테크 및 커머스 스타트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카카오페이와 함께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지속 성장하는 데 겪는 불합리한 규제 여건이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혁신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혁신창업기업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니 기자 honey@



김동연(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임기 1년4개월 남기고 사임

KDI 김준경·대외경제연구원장 이태·국책연구원장 잇따라 물러나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이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 놓고 물러났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의 심적 부담이 커지면서 사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손기용 통일연구원장에 이어 4번째다.

유 원장은 이달 19일 퇴임식을 끝으로 산업연구원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연말 연초에 계획된 연구원의 대내외 사업을 마무리한 후 산업연구원이 새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유 원장은 1988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

년간 경제·산업 연구를 하며 동향분석실장과 경제연구본부장 등을 지낸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다. 한국경제학회와 경제교육위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산업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전략과장 등도 거치면서 경제 분야 연구 경험을 쌓았다.

거시와 미시를 함께 아우르는 경제통으로 지난해 민간연구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사임했고,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역시 지난해 말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 놓고 물러났다. 박엘리 기자 ellee@

“小상공인·영세中企 위한 추가 보완대책 준비 중”

김동연 부총리, 카드 수수료·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등 발표 예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 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새해부터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력 해고와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기존 대책은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을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최저임금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추미애 “지대개혁 통해 불평등 사회 개선”

신년 기자회견서 거듭 천명 “黨 차원에서 구체 로드맵 제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해 올해를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해 명실 상부한 세계 7대 경제 강국 대열에 합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에 마냥 환호만 지를 수 없다”며 “인간다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지난해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을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질시키고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대 얼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나라가 대대손손 보장해줬던 피상속자인 후손들의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을 통해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중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수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여와 목민심서의 구절을 인용해 “불환빈(不患貧)환불균(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면서 “땅보다 맘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대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국회 환노위 소속 與野의원 4명 국감기간에 피감기관인 산업인력공단 돈으로 해외 출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낸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이 낸 비용으로 왕복 항공편과 숙소까지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윤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중이다.

17일 국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환노위 환정애·신창현(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10월 13일 에티하드항공 편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

다비에서 열린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차 출국했다. 이들은 한국 대표선수단을 만나 격려하는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왕복 항공편과 현지 숙소비용은 전액 산업인력공단 측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출장 시점이 고용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었다는 점이다.

출장 비용을 낸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환노위 국감은 이들이 출장을 다녀온 후인 26일에 열렸다. 이에 따라 국감을 목전에 두고 피감기관 돈으로 해

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정에 의원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 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전혀 문제없이 다녀왔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 측 관계자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 측은 산업인력공단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출장 시점이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시 산업인력공단의 유권해석 요청에는 ‘국회의원들이 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선수 격려차 간다’고 돼 있고 국감 기간 중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단순 격려나 위유성 출장은 안 된다고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1週間’을 계산할 때 5日이나 vs 7日이나

대법원으로 간 ‘휴일근로, 연장근로 해당 논쟁’ 공개변론

1審 “해당된다”... 2審선 “별개” 엇갈려 산업계 vs 노동계, 첨예한 대립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내일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이 새로운 변론 진행 방식을 진행하는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범위다.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별개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돼 가산임금은 현행 50%에 연장근로수당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주일을 ‘월·금’ 5일간으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

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1주일을 ‘월·일’ 7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막대한 고용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미칠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합에 회부했다. 더불어 공개변론을 통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양측 대리인과 참고인들의 일방적 진술 대신 쟁점별로 재판부와의 토론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법대와 가까운 거리에 변론진술대를 설치하는 등 토론식 변론이 쉽도록 법정구조를 변경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정호진 기자 js62@

“평창올림픽 철통경계 이상 無!”



해군 1함대 3특전대대(UDT/SEAL) 특수부대원들이 16일 강릉시 강릉형에서 해상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1함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 및 개최 기간 해상 경비작전, 해상 대테러 작전 등 확고한 군사대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檢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관련 현정은 회장 수사 착수

검찰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당시 현대상선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현정은(63)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현대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현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

장의 5남 고(故) 정몽헌 회장의 아나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현 회장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체결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현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대상선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로지

스틱스 매각 과정에 현대상선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며 “매각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과 결정권자들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단독으로 후순위투자(1094억 원)를 따내고 영업이익을 5년 동안 매년 162억 원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악화로 2016년 7월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권이 현대그룹에서 KDB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대기업 총수들, 박 전대통령 재판에 안 나온다

檢, 허창수 회장 등 증인신청 철회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 심리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9차 공판에서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허창수 GS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사장) 등 7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 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11일 직접 증거인부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반대해온 김 회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퇴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미경 CJ 부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은 23일 진행된다. 이외

에도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25일과 29일 각각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49)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최 씨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지는 취지의 말씀은 있으셨다”며 “하지만 그것이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에 한정된 증인신문을 할 때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질문에 답하면서 수차례 “대통령 지시라기보다 제가 대통령 뜻을 헤아려 알하는 과정에서 과했던 것 같다. 제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초 자료 올려드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대통령 스스로 고치는 게 많은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그 부분(최 씨 의견을 들어보라)에 대해 챙기라고 하셨다”고 진술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합의 불발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57)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두 번째 이혼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이혼조정 기일에 모두 참석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달리 지난해 11월 열린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조정은 1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한 조정위원은 심리가 끝난 후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조정 시작 5분 전 갑색 코트에 푸

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조정 시작 3분 전에 도착한 노 관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양 측은 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각 다른 법정에서 대기하다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정이 끝난 후 최 회장보다 먼저 법정을 빠져나온 노 관장은 “(기준과 같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 퇴장 5분 후 법정에서 빠져 나왔다. 최 회장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3차 조정까지 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정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많다.

박미선 기자 only@

이건희 회장 몰카 촬영 前 CJ 직원 실형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박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생 선(47)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중국 국적의 김모(31)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임신 24주인 점이 고려돼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죄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공모해 계획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두 차례 협박해 6억 원과 3억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 피해 규모, 관여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Maxim

KANU AROMA

좋은 커피는 한 순간도 향을 놓치지 않기애. 올 가을 카누의 향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커피

가상화폐 ‘벌집계좌’ 블랙리스트 만든다

자금세탁·해킹 등 사고 방지
은행, 정보 공유로 거래 차단
내주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후발 거래소 영업 타격 우려

시중은행이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보다 답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키로 했다. 현재 이 계좌는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 등 상황 발생시 거래자금이 뒤엎기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벌집계좌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킨다. 이는 벌집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이 신규 가상계



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기존 벌집계좌까지 막으면 후발 중소형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는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의 거래를 식별하는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다. 법인계좌에 1년부터 100만 번까지 일련번호를 줘 특정인 명의의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대다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해왔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12월 중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

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썼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사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

무엇보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나 임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최초 발급되므로 은행 입장에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위법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 명이나 임원 명의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해 선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후발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계좌는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원의 점검 과정에서 가장 밀도 있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기자 acw@

일반·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요건 비교

일반·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3개월	질병 확진진단, 질병 의식소건,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3개월	입원 필요조건, 수술 필요조건, 치료, 추가검사 필요조건 여부
3개월	약물(수면제·진통제 등) 상시복용 여부	3개월	가입심사 요건 아님
1년	추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5년	가입심사 요건 아님
5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여부	2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
5년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5년	입(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

※자료: 금융위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 가입

보험사, 4월부터 유병력자 대상 상품 판매

앞으로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의 일환이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에 대한 심사 대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과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등 10대 중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4월부터는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암의 경우 심사 기한을 최근 5년으로 유지한다고 금융위측은 밝혔다. 의학적으로 암은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

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입심사 항목도 6개로 대폭 줄였다. 기존 실손보험은 입산·장애와 관련한 취미, 음주·흡연, 직업, 운전, 월 소득 등 총 18개 사항이 심사 대상이었다. 그중에서도 투약을 심사항목에서 제외해 투약을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장 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의 최대 30%까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 3만4230원, 여성은 4만8920원 선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하나금융 차기회장 후보 3명... 김정태 ‘3연임’ 유력

김정태·최범수·김한조 3파전
22일 심층면접後 최종 확정

금감원, 회장 특혜대출 조사
연임해도 결과 따라 중징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범수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22일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한다. 금융권에선 김정태 현 회장의 3연임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회추위는 전일 오후 회장 후보군을 김정태 현 회장, 최범수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최범수 전 부사장은 1998년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자문관을 지냈다. 이후 국민은행 전략기획담당 부행장, 신한

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 한국크레디뷰로(KCB) 대표를 지냈다.

회추위는 “최 전 부사장이 외환위기 당시 금감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금융사의 구조조정과 합병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은 외환은행에서 기업사업그룹장(부행장보)을 지낸 뒤 외환캐피탈 사장과 외환은행장을 역임했다. 현재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을 역

임하고 있다. 회추위는 22일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뒤 최종 1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태 회장은 KEB하나은행 합병 전인 서울은행 출신으로 하나은행장(2008~2012년)을 지낸 뒤 2012년 지주회장에 올랐다. 2015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면 2021년까지 총 9년 동안 지주 회장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15일 채용비리·특혜대출

등 검사를 이유로 회장 선임 일정을 미뤄달라는 공문을 회추위 측에 보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회사 인사 불개입 입장을 밝히면서 하루 만에 검사 연기를 결정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예정돼 있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검사에) 추가하지 않고 추후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장 선출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채용비리, 특혜대출 등 현재 하고 있는 검사 외에 다른 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배구조 검사는 지난해 11~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이 금융지주의 허술한 CEO승계프로그램을 지적하면서 의무적으로 추진해 왔다.

다만 김정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금감원의 특혜대출과 채용비리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우려는 있다. 박규준 기자 abc84@

당국, 外部감사인 등급 신설 검토

‘6+3’ 감사인 지정제·회계법인 자산총액 따라 점수 차감

금융당국은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는 매출액이 추가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전일 열린 회계개혁TF 전체 회의에서 ‘6+3’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을 비롯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외부감사 대상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먼저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정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금감원의 특혜대출과 채용비리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우려는 있다. 박규준 기자 abc84@

정 신청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추가하면서 감사 대상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자산, 부채, 총업원 수 등만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다.

이밖에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이 큰 상장사의 지정 검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지정 점수를 크게 차감해 다음 번 ‘일감 수주’ 시 불리하게 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용과 감사에 소홀하면 임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제재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임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기, 일괄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 수임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기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기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임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이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하프파이프엔 [비현실적인] 순간이 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시간이 멈추는
장소인 게 분명합니다

눈 깜짝할 새에
360도를 넘어
무려 1440도의 회전을 하고도

여유롭게 착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기적 같은 순간들 그 안에
반도체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현대상선, 옛주인 '현정은 배임' 제기 왜



현대상선 정진석 준법경영실장(전무)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에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현대상선측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나는 (대주주에서) 물러나지만 현대상선을 꼭 도와 달라.”

‘눈물의 편지’까지 보내며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나섰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상선 전 경영자들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맺은 ‘부당 계약’이 현재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상선 측은 전임 경영진이 체결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관련 계약으로 최소 109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그룹 측은 반발하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이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진행됐고, 매각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긴밀한 협

배임혐의 피소한 현대상선

로지스틱스 매각시 부당계약 손실 1094억 넘어 유동성 위기

의가 이뤄졌는데 3년이나 지나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그룹 안팎에서는 현대상선의 현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입김이 작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도 16일 기자회견에서 고소 전 산업은행과 교감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배임에 의한 피해는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이다”며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년여간 흑독한 구조

반발하는 현대그룹

3년 전 계약서 문제 이해 안돼 소송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조정 영향으로 산업은행 체제에 편입됐으나 아직까지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15년 2분기부터 시작된 영업적자는 올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영업해도 당장 손실을 매우 급급한 현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다. 이에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했고, 이번에는 논란이 된 계약 건도 발견하게 됐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2016년에 채권단

실사 과정에서 회사에 부담이 되는 악성 계약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로지스틱스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했다”면서 “유상권 사장 취임 후 그런 (악성) 계약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상선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해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대강의 규모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현대상선은 옛 모기업과 일전을 불사해야 할 상황이 됐다. 현대상선은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워라밸’ 앞장서는 유통업계 ‘육아빠’ 독려 잇단 파격지원

〈육아하는 아빠〉

유통 대기업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유통업 규제를 앞둔 가운데 근로환경 개선을 정책 과제로 내건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자유로운 온라인 유통업체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도입 1년을 맞아 남성 육아 휴직자는 1000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 백화점은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휴직은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1개월간 자동으로 시행되며, 소득 감소를 이유로 휴직을 기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휴직 기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 준다. 롯데는 남성 육아 휴직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롯데 대디스쿨’도 운영해 육아에



현대백 올부터 남성 육아 지원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 보전 롯데 1년새 휴직 1000명 훌쩍 신세계 週 35시간 근무제 하제

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로 도입한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근무는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으로 나눠 직원들이 각자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

대한 이해를 돕고 휴직 기간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돕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주 35시간 근무는 유럽과 해외 선진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근무 형태로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보다 5시간 적다. 신세계 임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세계는 특히 기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 역시 추가로 진행하는 등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조남호 기자 sprdan@

“다시 해운강국” 해양진흥공사 설립前 신규발주 금융지원

7월 출범 앞두고 설립위 구성...조기 지원 방안 검토 올해부터 2~3년동안 200척 선박신조 지원할 예정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을 위한 설립위원회가 내달 출범하는 가운데 해운사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사전에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가 다음 달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운수산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설립위원회는 차관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운업계 인사도 포함된다.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 비전·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는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해 선사에 대한 선박발주 및 유동성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

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르면 3월 중 선박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공사 설립 시기가 7월인데 선박금융 지원 절차에만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까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등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2~3년 동안 200척의 선박신조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지원 규모는 선사별로 선박신조의 최소 15%에서 4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프로그램을 조기에 가동할 경우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신규 선박 발주 시 선박 제조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기존 부산권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 해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선사에 대한 투자 및 보증은 물론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재융선, 채권매입 등 금융 지원과 함께 해운거버넌스 등의 정책 업무도 맡게 된다. 문선영 기자 moon@

中·日 장벽 못넘는 토종 배터리

LG화학·삼성SDI 등 글로벌 출하량 증가에도 순위서 밀려

국내 기술 세계서 인정 긍정적

LG화학·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출하량 순위가 올랐지만, 중국과 일본의 벽을 깨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간 기준 전 세계 전기차에 출하된 배터리 출하량 순위에서 국내 업체인 LG화학이 4위였다. 1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며 2위와 3위는 중국 기업인 CATL과 BYD가 차지했다. 삼성SDI는 5위를 기록했다.

중국계 기업인 CATL과 BYD가 강세를 보인 것은 중국 전기자동차 판매 급증세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내수기업 위주로 돌아간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40~5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기업들의 출하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SNE리서치는 중국 기업을 제외한 통계를 제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LG화학은 파나소닉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 삼성SDI는 3위, SK이노베이션은 7위를 기록했다.

국내 업체들에 중국 시장은 장벽이다. 전년 동월 대비 LG화학은 약 2.7배 급성장하면서 동기 6위에서 4위로, 삼성SDI

는 9위에서 5위로 상승했지만,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더욱이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없이는 차량 판매가 어려우므로 한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배터리 부문에서 제후를 맺은 파나소닉은 전기차 출하량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골치를 썩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 달리 파나소닉은 지난해 첫 차례 포함됐다. 일각에서 중국의 무역보복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지만 삼원계 방식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SDI가 제외된 것이다. 파나소닉 또한 이번 보조금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중국 시장에선 부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업체와 중국 업체의 품질 차이가 확연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품질 차이를 어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마그네슘 합금 적용, 사실로? ‘갤S9’ 더 가볍고 튼튼해지나

내달 바로셀로나MWC서 공개 이르면 3월 돼야 제품 출시할 듯 광각·망원 기능 탑재한 카메라 ‘슈퍼슬로모’ 기능도 장착 가능성

삼성전자가 다음 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와 ‘갤럭시S9플러스’를 공개한다. 해외 IT 전문 매체나 블로거 등에 제품의 포장 박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 통과 소식과 브라질 통신기관 인증까지 올라오면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품 공개 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 출시되는 점을 미루보면 갤럭시S9의 출시 시기는 이르면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과 달라진 점은 무엇?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다. 갤럭시S9플러스에는 갤럭시S 시리즈 최초로 갤럭시노트8과 같은 듀얼픽셀 1200만 화소 광각카메라와 1200만 화소 망원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가운데 드물게 밝기를 의미하는 조리개 값이 F1.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의 조리개 값은 F1.7이었고, LG전자 V30이 F1.6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스마트폰 카메라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카메라에 ‘슈퍼슬로모(Super Slow-mo)’ 기능이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능은 영상을 초고속 촬영하면서 미세한 동작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으로 지난해 소니 엑스페리아XZ 프리미엄에 장착됐다. 갤럭시S9의 화면비는 전과 동일한 18.5:9로 추정되며, 화면 크기는 5.8인치, Q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사용된다. 지문 인식 센서위치는 전작과

갤럭시S8시리즈와 갤럭시S9 시리즈 비교 (단위: mm) ※사진제공: 폰아레나

			
갤럭시 S8	갤럭시 S9	갤럭시 S8+	갤럭시 S9+
크기: 68.1 X 148.9	크기: 68.7 X 147.6	크기: 73.4 X 159.5	크기: 73.9 X 157.6

달리 카메라 아래쪽에 위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볍고 튼튼한 마그네슘 합금 적용? = 폰아레나 등 해외 IT전문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특허청에 ‘메탈 12’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메탈 12’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합금으로 삼성전자 2018년형 노트북9에 적용됐다. 기존 스마트폰은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있다. 마그네슘 합금은 일반 알루미늄과 비교해 강도가 2.8배 높고, 무게는 65% 정도 가볍다. 열차단력과 전파 통과력도 우수하다. 하지만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들은 마그네슘 합금의 단가가 높고 대

량으로 생산하기가 어려워 탑재를 꺼려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7부터 스마트폰에 마그네슘 합금 적용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제품 출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상표권 내용에 따르면 해당 마그네슘 합금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메탈 12’를 갤럭시S9에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합금이 적용될 경우 갤럭시S9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자존심 회복’ 인간힘 속 픽업트럭·SUV 각축戰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2018 북미오토쇼

2018 북미오토쇼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바로 앞서 폐막한 세계 최대의 전자쇼 CES 2018 탓에 잔뜩 주목된 모습이다. 여전히 글로벌 5대 모터쇼로 추앙받고 있지만 CES의 후광이 너무 컸던 탓이다. 이번 북미오토쇼는 픽업과 SUV가 무대의 중심에 나섰다. CES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다분하지만, 여전히 행사의 규모와 관심이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사실이다. 북미 오토쇼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의 처연한 모습들을 정리했다.

◇쉐보레 픽업트럭 100년의 아이콘 실바라도 = 쉐보레 픽업트럭의 역사가 올해로 100년을 맞았다.

픽업트럭 만들기 경지에 다다른 그들의 기술력이 마음껏 담긴 새 모델은 실바라도. 이 차에 출몰 미국인들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차가 공개되면서 관객의 환호에 폭발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공개하던, 그 순간의 환호와 맞먹는다.

실바라도는 V8 5.3리터와 6.2리터 가솔린 엔진을 앞세워 넉넉한 배기량이 미덕임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북미 픽업트럭의 면모를 갖췄다. 앞모습을 공격적으로 바꿔 독특한 인상이 매력적이다.

픽업트럭은 개발 주기가 길고 원가가 저렴하다. 마진이 높은 만큼 알짜 모델로 통한다. 매년 미국에서만 60만 대 안팎이 팔리는 덕에 실바라도는 GM의 중요한 수익원이다.

◇지프 영토 확장의 첨병-체로키 = 지프는 체로키 페이스리프트를 앞세웠다.

LED 타입의 주간주행등 자리에 헤드램프를 끌어올린 점이 이전 모델과 차이다. 다소 비현실적이었던 전면부가 이제 납득할 만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무척 반가운 부분이다.

직렬 4기통 2.0 터보 엔진을 얹고 그랜드 체로키와 레니게이트 사이에 자리 잡는다. 랭글러 못지않은 오프로드 성능을 지녔음에도 주행 감각은 다분히 도심형 SUV를 지향한다.

◇SUV와 해치백 감성의 조화 BMW X2 = 독일 BMW는 소형 SUV인 X2를 최초로 공개했다. 북미 SUV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100년 역사 가진 쉐보레

픽업트럭 ‘실바라도’ 노하우 집약

지프 ‘체로키’ 도심형 SUV 지향

BMW ‘X2’는 해치백 감성 녹여

현대차 ‘신형 벨로스터·벨로스터N

과감하고 파격적인 디자인 선보여

기아차 ‘2세대 K3’ 균형미 돋보여

반영한 전략이다.

새 모델은 윗급 X3의 특성과 아랫급 X1의 감성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타협점을 찾았다. 강인한 인상에 쿠페 스타일의 스포티함, 나아가 우아한 루프라인과 슬림한 창문 디자인이 특징이다.

직렬 4기통 디젤을 기반으로 3기통 소형 엔진도 선보인다. 3월 글로벌 각 지역에 점진적으로 출시된다. 물론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

◇다음 세대 닛산 SUV의 밑그림 ‘크로스모션 콘셉트’ = 일본 닛산은 이번 행사에서 양산차 대신 SUV 콘셉트카 ‘크로스모션(Xmotion)’을 공개했다.

첨단 크로스오버와 SUV 노하우를 한데 모았다고 닛산은 밝혔다. 일본도(7)를 비롯해 일본의 전통미를 보다 곳곳에 심어내기 위해 닛산이 이번에는 전통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콘셉트카를 디자인했다. 앞으로 나올 닛산 SUV의 디자인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다.

◇고성능 해치백의 아이콘...현대차 2세대 벨로스터 = 현대차는 ‘신형 벨로스터’와 ‘벨로스터 N’을 최초로 공개했다.

신형 벨로스터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1세대에 선보이며 파장을 일으킨 1+2 비대칭 도어는 여전히 2세대까지 이어졌다. “전작의 디자인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후드와 벨트라인을 하나의 강한 곡선으로 연결해 슬리하고 개성 있는 프로파일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자동차 ‘2세대 벨로스터’, 지프 ‘체로키’, 기아자동차 ‘2세대 K3’, BMW ‘X2’.

을 완성했다”는 게 벨로스터를 그려낸 디자이너 구민철의 설명이다.

북미 시장에 누우 2.0 엔진과 감마 1.6 가솔린 터보 엔진 등 총 2개의 엔진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카파 1.4 가솔린 터보와 감마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나온다.

◇기아차 디자인 전성기로 회귀-2세대 K3 = 마침내 기아차의 주력모델 K3가 2세대로 거듭났다.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이 특징이다.

이전보다 한결 균형미 넘치는 디자인과 편의사양도 눈길을 끈다. 기아차는 새 모델의 특징으로 △역동적인 디자인에 불륨감을 더한 업 스페일 다

이나막 디자인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인 실내 공간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 등을 꼽았다.

신형 K3는 최고출력 147마력을 내는 누우 2.0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다. 이 밖에 핫스탬핑 공법, 초고장력 강판 적용 등을 통해 매우 견고한 차체 강성을 확보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세단 자존심’ 혼다 어코드

SUV 열풍 속에서
디자인·성능 평가
‘北美 올해의 차’ 선정

10세대로 거듭난 혼다 어코드가 이번 행사를 통해 ‘2018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막판 경쟁에서 한국의 기아 스텔러, 일본의 토요타 캠리를 가까스로 앞질렀다. 행사 전반에 픽업트럭과 SUV 광풍이 몰아쳤지만, 가까스로 패밀리 세단의 자존심을 지켰다.

‘북미 올해의 차’는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50여 명의 자동차 전문 언론인이 지난해 북미에서 출시된 신차 가운데 부문별 최고의 차를 뽑는다. 디자인과 성능, 내구성 등 40여 가지 항목을 철저하게 심사한다. 경쟁이 만만치 않아 완성차 메이커에는 적지 않은 영예로 여겨진다. 물론 신차 마케팅에도 심분 활용할 수 있다.

올해의 주인공은 10세대로 거듭난 혼다 어코드다. 전통적으로 패밀리카 강자 토요타 캠리와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손꼽혀 왔다. 패밀리카로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유감없이 담아왔고 경쟁 모델의 개발 방

향을 이끌어온 모델이다.

영광의 주인공 어코드는 아랫급 시빅에서 시작한 혼다의 디자인 감각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헤드램프를 깊게 파고든 ‘그랜드 워’ 타입 프론트 그릴이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짧아 보이는 트렁크 리드 역시 스포티한 걸모습을 완성하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새 모델은 다운사이징 시대의 흐름에 맞춰 V6 엔진 대신 직렬 4기통 엔진을 얹었다. 2.4와 3.5엔진 대신 직렬 4기통 1.5와 2.0을 얹어 한결 가벼워졌다. 모자란 출력을 과급기(터보)를 더해 만회했다.

1.5 터보엔진은 최고출력 191마력(PS)을 낸다. 윗급으로 자리매김한 2.0 터보는 최고출력 252마력이다. 경쟁선상의 현대차 쏘나타 2.0터보(245마력), 아우디폭스바겐의 2.0터보(220마력)를 앞지르는 수치다. 일본과 함께 미국 오하이오 혼다 공장에서 생산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Romantic Moments Last a Lifetime

Kelly Chen

Cocktail Automatic Collection

Ernest Borel 1856

에르네스트보렐 공식수입원 (주)티보스 1661-5705
공식온라인샵 <http://www.tbossmall.com>
www.ernestborel.ch

[서울] 두타면세점(동대문점) 1833-8800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경기] 사론워치(안양점) 031-463-9788 |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충청] 신세계백화점(충청점) 041-640-5081 | [제주]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제주점) 064-780-7669

새콤달콤 香... 입안 가득 '봄'이 왔네

지금 호텔은

호텔가에 딸기 향이 짙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쁜 음식 사진을 공유하는 이른바 '푸드스타그램'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티라미수, 케이크, 마카롱 등 특급호텔의 딸기 디저트 뷔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딸기를 활용한 색다른 신메뉴를 만들고 싶다면 호텔 업계 최초로 2007년 처음 딸기 디저트 뷔페를 선보인 '원조'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찾으면 된다. 4월 15일까지 2곳 레스토랑에서 각기 다른 컨셉으로 딸기 디저트 뷔페를 운영한다. 30층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딸기 정원' 컨셉으로 이탈리아 스타일로 해석한 딸기 브뤼레, 딸기 플라멩코를 곁들인 감자 노끼, 딸기 밀피유 등의 메뉴를 선보인다. 로비라운지는 '스트로베리 에비뉴'라는 주제로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를 재해석해 30여 가지의 딸기 메뉴로 구성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비라운지에서는 '스트로베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딸기 뷔페.

티라미수·케이크·마카롱 등 30여 종류 딸기 메뉴 선보여 3만~6만원대... 워커힐, 딸기 2000개 쌓은 '베리타워' 눈길

부티크' 테마로 벨라 뒹 총주방장의 지휘 아래 딸기를 활용한 티라미수, 마들렌, 모찌, 보석젤리 등 신메뉴를 만날 수 있다. 가격은 5만1000~6만5000원이다. 디저트뿐만 아니라 간단한 식사까지

더하고 싶다면 롯데호텔서울의 '머스트 비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이 제격이다. 4월 29일까지 주말마다 진행한다. 올해는 여성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딸기와 제철 채소, 해산물이 들어간 3종의 샐러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탕수육, 망고 소스를 곁들인 새우튀김, 볶음밥이 준비된 핫코너를 마련했다. 더불어 샌드위치를 비롯한 케이크와 티라미수, 마카롱 등 35종류의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올해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까지 더하는 곳도 있다. 워커히호텔앤리조트는 딸기 디저트 뷔페 '베리 베리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약 2000개 이상의 생딸기를 충창이 쌓아 올린 베리 타워를 선보인다. 지난해 선보였던 딸기 버거와 피자바게트를 비롯한 20가지의 신메뉴를 추가해 총 40여 가지의 메뉴를 맛볼 수 있어 규모 면에서 으뜸으로 통한다.

가성비를 따진다면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의 '미 스위트 스트로베리 뷔페'만 한 곳이 없다. 캐주얼 바 모모바에서는 3만 원대에 즐길 수 있는 실속형 딸기 뷔페를 선보인다. 디저트 메뉴로 가장 인기 있는 딸기 파블로바, 딸기 티라미수, 딸기 크림 슈, 딸기 피자 등이 준비된다. 뷔페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3만 9000원이다. 김민정 기자 mj@

가보니 롯데하이마트 '옴니스토어' 구리역점

매장에 없는 제품, 태블릿 PC로 주문 茶 한잔 마시고 나니 "제품 왔습니다"

북카페형 서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소설을 읽던 주부 김정민(41) 씨는 대기 번호가 카운터에 뜨자 매장 태블릿 PC로 주문한 무선 스틱 청소기 제품을 받았다. "참 편리하네요. 옴니존에서 다양한 제품을 살펴본 뒤 결제하고 제품을 매장에서 받아갈지 배송할지 선택할 수 있어서요."

5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 문을 연 경기 구리시 롯데하이마트 '옴니스토어'는 국내 가전 유통업계 최초의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이다. 1층 매장 중앙에 위

옴니존을 이용해 전기밥솥을 구입했다는 이선경(27) 씨는 "예전에는 매장에 구입하려면 제품이 없으면 그냥 돌아왔는데 옴니존을 이용하니 매장에 없는 제품도 바로 구입할 수 있어 좋다"며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다고 했다.

조성현 롯데하이마트 옴니제넬팀장은 "옴니스토어"는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매장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구매하는 오프라인 구매 장점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



롯데하이마트는 5일 하이마트 구리역점을 세단장하고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 '옴니스토어'를 열었다.



은 온라인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말했다. 1320㎡(약 400평) 규모의 '옴니스토어' 구리역점은 옴니존의 편리함과 함께 일반 가전매장과 사뭇 다른 매장 분위기를 풍긴다. 100㎡ 규모의 북카페, 서점 겸 라이프스타일 매장, 다양한 휴식공간이 들어서 있어 복합문화공간과 유사하다. 이곳을 찾은 고객들은 책을 보다가 매장에 진열된 가전제품 소풍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다 '옴니존'에서 태블릿PC를 통해 매장에 없는 제품을 주문하기도 한다.

온·오프라인 결합형 家電유통 8만여개 제품 검색·결제·구입 북카페·라이프스타일 매장 등 다양한 공간 마련 소비자 만족

치한 '옴니존'에선 고객들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태블릿PC를 사용해 매장에 진열돼 있지 않은 가전제품까지 두루 살펴본 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비슷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간단해 이용하기 편리하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쇼핑에 어려움을 겪는 장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옴니존에선 매장에 진열된 상품 수(5000~7000개)보다 훨씬 많은 8만여 개의 가전제품을 검색하고 곧바로 결제해 구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수령할 수도 있고 배송 주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2층에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일반 매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매장 전체가 책과 가전이 함께 진열된 복합 서가로 구성됐다. 매장 곳곳에 화분, 액자, 책 등을 비치해 가전제품만 진열된 매장과 차별화했다. 오븐토스터 옆에는 요리책을, 커피머신 옆에는 세계문학 전집을 꽂아두는 배려가 돋보였다. TV,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코너는 프리미엄 상품 위주로 여유롭게 진열해 고객들이 차분하게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핫 아이템

미세먼지 예방 아이템 "너만 믿으려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측된 15일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무료 운행까지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예방 아이템에도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기침, 눈 따가움, 피부 트러블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나 영유아, 순환기 질환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이후 얼굴에 묻은 미세먼지는 간단한 세안으로는 말끔히 제거되지 않아 클렌징 디바이스를 활용한 별도 케어가 필요하다. 실큰 진동클렌저 퓨어는 맨션 세안보다 세정 효과가 뛰어난 클렌저로, 음파진동 효과를 이용해 클렌징 모드와 마사지 모드 2가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클렌징 모드는 미세 먼지 딥 클렌징, 모공 축소, 윤기 개선, 마사지 모드는 효과적인 소닉 음파 마사지 기술이 리프팅, 피부 탄력 개



왼쪽부터 실큰 진동클렌저 퓨어, 유유제약 피지오머, 지키다 미세먼지 차단 스프레이.

실큰 진동클렌저 퓨어

음파진동으로 세정효과 뛰어나

지키다 미세먼지 차단 스프레이

외출前 옷에 분사 먼지부착 방지

유유제약 피지오머

100% 천연멸균 海水로 코 세정

선을 각각 도와준다. 일반 피부용 '레굴러 브러시'와 예민한 피부를 위한 '소프트 브러시' 2개가 내장돼 있어 피부 유

형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소지품과 옷 관리도 중요하다. 외부활동 중에 아이의 옷과 소지품 곳곳에 남은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실내로 들어와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하기 때문이다. '지키다' 미세먼지 차단 스프레이(350ml)는 외출 전 아이 옷이나 인형, 패브릭 소재의 소지품에 가볍게 뿌려 미세먼지 부착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외부 기관에서 미세먼지 흡착 방지

테스트와 흡입독성 실험을 완료했으며 폐로 흡입되지 않는 분무 입자로 만들었다. 또한 양이온 계면활성제, 파라벤(6종) 등 4가지 대표 유해성분을 배제해 아이 의류 및 패브릭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콧속 청결도 빼놓을 수 없다. 기관지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방지하면 알레르기 비염, 천식, 코막힘, 기침 등 각종 관련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유유제약의 '피지오머'는 생리 식염수가 아닌 100% 천연 멸균해수로 만든 코 세정제, 알레르기성 코 질환 환자는 물론 연약한 어린이의 코막힘 증상에 도움을 준다. 피지오머는 베이비(생후 2주 이상 영·유아용), 키즈(3세 이상 소아용), 젠틀(6세 이상 소아·성인용), 스트롱(10세 이상 소아·성인용) 4가지로 사용자의 나이 및 증상에 맞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조남호 기자 sprdn@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전등은 LED조명으로 교체, 에너지는 자연에서~ 그리고 에너지관리는 스마트하게!
우리의 선택이 생활 속에 스며들면 세상은 더 나은 내일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 내복, 목도리 등 방한용품 입기
-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
- 에너지관리 스마트하게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 친환경 전기차 사용하기

신한금융그룹은  대한스키협회를 후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스키 국가대표다”

선수단이 흘린 땀과 열정을 믿습니다
전세계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겨울
온국민의 이름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
김마그너스



프리스타일
모굴스키 국가대표
최재우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국가대표
이광기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터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  신한금융그룹

油價 뚝다,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

건설사들 실적 증가 예상...“언제든 급등락 가능” 우려 목소리도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는 국제 유가 상승세에 국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 때문이다.

16일 기준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물 가격은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70.26달러에 거래를 마쳐 증가 기준 2014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2월물 가격 역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장중 64.81달러까지 치솟아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도 감산 합의의 둘러싼 우려를 완화해 유가 상승세가 연장되며 7거래일 연속 올랐다. 달러 약세 역시 유가 상승에 기여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우리 건설업계에는 호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동 지역을 필두로 플랜트 발주물량

이 늘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건설업계의 연간 해외 수주액 중 60% 이상이 플랜트에 의존하는 만큼 플랜트 발주 물량 확대는 건설업계의 실적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실제로 국제 유가와 우리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실적 간의 상관관계는 몹시 크다. 국내 건설업계의 연도별 해외수주 실적을 보면 2010년엔 716억 달러를 수주하며 최고치를 찍었지만, 2017년(11월 기준)에는 226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2013년 652억 달러, 2014년 660억 달러를 기록하던 실적은 2015년 461억 달러로 급감했고, 2016년엔 282억 달러로 2006년(165억달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유가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만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라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부터 미뤄진 프로젝트, 하반기에는 중동과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발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 건설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가 상승이 건설업계 수주로 이어지려면 유가가 급등락을 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유가가 어느 선까지 오르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 해외수주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럴당 90~100달러 수준까지 오르게나 배럴당 70달러를 1분기 이상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가상승 랠리가 조만간 꺾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심해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일관된 유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올해 WTI 기준 국제유가 레인지(range) 상단을 기존의 배럴당 70달러로 유지한다”면서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하면서 유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천당 아래 분당’ vs ‘準강남 과천’ 차이?

8·2대책 이후 상승률 4.26%·0.72%...“더 나은 곳 선택” 분석

경기도의 양대 부촌으로 손꼽히는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시의 부동산 시장 성장세가 서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당은 지난해 하반기 강남에 필적하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과천은 이렇다 할 상승이 관측되지 않았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 이후 분당과 과천의 오름세는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각각 조사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 통계 모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분당은 8·2 대책 이후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강남에 비견할 만한 상승을 보였다. 먼저 한국감정원 자료에서 지난해 8·2 대책 직후인 8월 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4.2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 같은 수준의 상승률은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도 4.46%를 기록한 강남 4구의 평균치 외에는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을 수 없다.

반면 과천은 ‘준강남’의 체면을 구겼다. 과천은

같은 기간 0.72%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 전체의 상승률인 0.61%와 큰 차이가 없다.

KB국민은행 자료에서는 이 같은 차이는 더욱 극심하다. 이 자료에서 분당구의 경우 8·2 대책 이후 누적상승률이 4.30%가 상승해 강남 4구의 상승률인 3.32%를 오히려 1%p가량 능가했지만, 같은 기간 과천은 0.01%의 상승을 보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규제 기조 속 ‘뚝뚝한 한 제’ 선호 등으로 부촌 간에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이 투자재 중심으로 변질되면서 수요자들이 과민하게 쏠려다니며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분당의 경우 리모델링에 관한 호재, 제3판 교테크노밸리 조성 소식 등 과천에 비해 좋은 호재가 많았던 것이 많은 수요를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리모델링·재건축 ... 개포동 대치2단지 ‘현수막 전쟁’



리모델링 추진 속 “재건축 다시 검토하자” 내달 주민설명회

개포동 대치2단지 아파트에 현수막 전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절차가 간소화된 리모델링 대신, 지금까지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나서면서다. 대치2단지는 1992년 준공된 아파트로 2022년이면 재건축 연한 30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16일 찾은 대치2단지에는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는 소유주로 구성된 대치2단지 내재산지킴이'가 각각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사진) 내재산지킴이 측은 대치2단지 소유주들에게 리

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흐름인데다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유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실시는 내재산지킴이의 당면 과제다. 전체의 70% 내외인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의 연락처는 알 수 없으므로 대표인 조 씨는 조합에 조합원의 연락처와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

조 씨는 “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을 정말로 선택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 것”이라며 “사업성이 낮은 리모델링의 대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2월에 리모델링 재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조합 측은 2015년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 이미 검토했고 리모델링이 조합원에게 훨씬 더 나은 사업이란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학수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대치2단지는 바로 옆에 대치1단지, 대청과 대치분할이 이뤄져 있지 않아 단독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8·9월 정도에 감정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는 리모델링 반대 측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신철 기자 camus16@

‘하우징브랜드페어’ 내일 개막

최신 건축 동향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건축 전시회인 하우징브랜드페어가 18일부터 개최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하우징브랜드페어는 건축 분야 신제품·신기술의 경연장으로서, 해마다

많은 건축사와 공무원 등 바이어들이 관람하는 필수 전시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내 건축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고 명품 건축사재를 선보여 온 건축산업 전문전시 하우징브랜드페어는 이번엔 인테리어, 리빙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일반소비자(B2C)와 전문가집단(B2B)을 모

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회로 준비된다. 또한 최근 붐이 있는 셸프 인테리어 붐을 타고 더욱 많은 참가객 유치를 위한 양질의 콘텐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우징브랜드페어는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전관(A, B홀)에서 열린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추천 매매물건

◇서울 금천구 시흥동 791-40, -39, -42 에스엘엘투이 = 2층 206호가 매매에 나왔다. 2012년 11월 준공한 1개동 82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85㎡, 방 3개 욕실 2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단지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으며, 물건 인근으로 희명중합병원, 흙골러스, 금립폭포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문백초등학교, 문일중학교, 문일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감정가 3억70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9600만 원이다. 입찰은 2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계. 2016-13199.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1-15 거성학마을 = 101동 3층 302호가 매매에 나왔다. 1994년 12월 준공한 3개동 347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8층 건물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134.3㎡, 방 4개 욕

실 2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도봉구청)이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물건 인근으로 도봉구청, 성모샘병원, 정병원, 흙골러스, 빅마켓, 평화도봉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방학초등학교, 방학중학교, 서울문화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감정가 4억20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3억 3600만 원이다. 입찰은 2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 2017-7316.

◇경기 하남시 덕풍동 681 한솔리치빌1단지 = 110동 19층 1904호가 매매에 나왔다. 2002년 12월 준공한 15개동 1094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25층 건물 중 19층이다. 전용면적은 84.8㎡,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단지과 가까이 있으며, 물건 인근으로 덕풍1동 주민센터, 하남우체국, 햇살병원, 덕풍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동

부초등학교, 동부중학교, 남한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감정가 3억30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3100만 원이다. 입찰은 2월 5일 성남지원 경매 4계. 2017-7738.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7, -120, -139 옥일 = 1동 1층 112호가 매매에 나왔다. 1990년 10월 준공한 4개동 780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84.2㎡,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한길안과병원)이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물건 인근으로 부평중앙병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부영공원 등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부원초등학교, 부원중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감정가 2억20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1억5400만 원이다. 입찰은 2월 1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3계. 2017-1716.

힐스테이트 브랜드 구미 첫선 현대엔지니어링, 이달말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은 경북 구미시 송정동 37번지 일대(옛 삼성전자 사원아파트 부지)에서 힐스테이트 송정 아파트를 1월 말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9·20층 1, 2단지 7개 동 전용면적 59-104㎡ 526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68가구, 74㎡ 95가구, 84㎡ 194가구, 104㎡ 69가구 등이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구미에서 첫선을 보이는 힐스테이트 송정은 구미시 내 ‘강남’ 입지라고 불리는 송정동에 위치해 있고 중소형 위주로 특화 설계가 도입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송정동은 행정타운, 교육 및 학원,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전통적으로 구미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힐스테이트 송정 도보 거리에는 구미시청과 우체국,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지원청 등 행정타운이 밀집해 있다. 공공기관과



관련 업체들이 모인 만큼 송정동 일대는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교통, 상권, 교육 여건 등이 꾸준하게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오초, 구미여중, 금오고 등이 인접한 학(學)세권 프리미엄도 눈길을 끈다. 행정타운이 가까워 아파트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용도	소재지	건물(㎡)	감정가(만원)	최저입찰가(만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번호
아파트	서울 금천구 시흥동 791-40, -39, -42 에스엘엘투이 2층 206호	85	37,000	29,600	80%	02월06일	남부1	2016-13199
아파트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1-15 거성학마을 101동 3층 302호	134	42,000	33,600	80%	02월12일	북부1	2017-7316
아파트	서울 광진구 광장동 580 광장12차 현대홈타운 1202동 16층 1601호	144	112,000	89,600	80%	02월05일	동부3	2017-51614
아파트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 한양 1동 10층 1009호	77	30,000	24,000	80%	02월12일	북부1	2017-8593
아파트	서울 노원구 중계동 576 현대 102동 1층 101호	66	31,400	25,120	80%	02월12일	북부1	2017-8272
아파트	경기 하남시 덕풍동 681 한솔리치빌1단지 110동 19층 1904호	85	33,000	23,100	70%	02월05일	성남4	2017-7738
아파트	경기 김포시 운양동 1249-1 풍경마을 한강리버빌 102동 2층 202호	105	45,000	31,500	70%	01월25일	부천9	2017-61988
아파트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47-3 송산주공 114동 6층 604호	59	18,800	13,160	70%	02월01일	의정부8	2017-78250
아파트	인천 부평구 부평동 65-7, -120, -139 옥일 1동 1층 112호	84	22,000	15,400	70%	02월01일	인천3	2017-1716
아파트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 연수1차우성 103동 9층 905호	134	37,300	26,110	70%	02월02일	인천7	2017-18813

‘복합기업 저주’ 걸린 GE, 공중 분해되나

1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너럴일렉트릭(GE)이 ‘복합기업’이라는 타이틀의 빛에 걸렸다. 방대한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한때. 지금은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 그룹 전체를 잡아먹고 있다. 급기야 GE는 ‘그룹 해체’라는 초강수를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16일(현지시간) GE 산하 금융사 GE캐피탈은 지난해 4분기 62억 달러(약 6조6017억 원)의 세후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GE캐피탈의 부진한 실적에 이날 GE 주가는 2.93% 급락했다. GE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지난 3개월간 GE 주가는 19.7% 하락했고, 1년 동안에는 40.2% 빠졌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는 29.8% 올랐다.

CNN머니는 전기, 제트엔진, MRI 기기 등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뽐냈던 GE가 복합기업의 저주에 걸렸다고 분석했다. GE는 미국의 전통 복합기업이다. 항공,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석유 등 방대한 사업부를 갖고 있다. 다양한 사업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으나 현재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손실이 그룹 전체에 피해를 주는 모양새다.

작년 8월 제프리 이벨트의 후임으로 취임한 존 플래너리(사진) 최고경영자

방대한 사업 부문별 악재 누적돼 분기 6.6조원 손실
플래너리 CEO “잠재력 극대화 위해 몸집 줄일 것”
올봄 구조조정안 나올듯… 전문가 “더 큰 혼란 온다”



(CEO)는 이날 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룹 해체를 모색할 수 있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우리 사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에 보험사업부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며 “이는 사업 재편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이날 GE는 보험 사업부와 관련해 150억 달러의 예비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E는 한때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출구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작년 12월 GE는 전력부문의 일자리를 1만 2000개 줄이며 뼈대대는 전력 사업을 손보는 데 집중했다. 미국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나 GE는 인력 감축에 박차를 가하며 쇠신을 단행했다.

GE는 지난 10년간 몸집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NBC유니버설, GE캐피탈의 자산 대부분을 파는 등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복잡한 회계 문제가 여전히 GE 발목을 잡아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작년에 잔여 부채를 검토한 결과

GE는 다음 달까지 30억 달러를 갚아야 하며 2024년까지 매년 20억 달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GE가 작년에 역사상 두 번째 큰 규모로 배당금을 삭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배당금을 줄인 건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8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200억 달러 자산 매각 계획’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기관차 사업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다. 기관차 사업은 미국 내 철도 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회사 창립 초기부터 주요 성장동력이었다. 플래너리 CEO는 봄에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해체만이 답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코웬의 구아람 카나 애널리스트는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해체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GE의 주가는 현재 주당 18달러 선이지만 각 사업부의 총합으로 평가하면 주당 11~15달러 선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또 “다양한 사업부가 공존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이체방크의 존 인치 애널리스트도 GE 해체가 너무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나는 GE가 해체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해체를 생각했다면 진작에 단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광저우자동차그룹(GAC)이 15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오토쇼에서 전기 콘셉트카 ‘엔버지(Enverge)’를 공개하고 있다. 디트로이트/AP뉴시스

북미 오토쇼 돌풍은 ‘예고편’ 중 전기車, 내년 美 진출 공세

막강한 자금력 무기로 도전장
GAC, 올해 美 판매법인 설립
바이톤, 테슬라 출신 임원 영입
비야디, 전기버스 점유율 높여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디트로이트에서 각각 열린 소비자전쇼(CES)와 북미 오토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막강한 자금력을 무기로 한 중국 전기차 벤처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리에코 설립자 자웨이팅이 최대 주주인 미국 전기차 업체 패러데이퍼처가 몰락하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21세기 대세가 될 전기차를 앞세워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광저우자동차그룹(GAC)은 전란 북미 오토쇼에서 전기 콘셉트카 ‘엔버지(Enverge)’를 선보여 관중의 눈길을 끌었다. 문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열리는 엔버지는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GAC가 미국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GAC는 2019년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미국에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살리콘밸리와 디트로이트에는 연구·개발(R&D) 거점을, 로스

앤젤레스(LA)에는 디자인 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GAC는 중국에서 연간 판매량 200만 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충분한 자금을 축적해왔다. 미국에 이어 유럽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열렸던 CES에서는 중국 전기차 벤처 바이톤의 부스가 관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바이톤은 대화면 모니터의 화려한 인터페이스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콘셉트카로 호평을 받았다. 바이톤은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흥하이정밀공업,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 등 유력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로는 이례적인 자금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바이톤은 살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 설계와 자율주행차량 등을 연구하는 R&D 센터를 두고 있으며 조달 담당 임원으로 테슬라 출신을 영입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바이톤은 2019년 자사 첫 전기차를 출시하고 2020년에 북미와 유럽 등에 진출할 계획이다.

워런 버핏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화려한 발표는 없지만, 버스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스탠퍼드대와 LA 시가 잇달아 BYD의 전기버스를 채택하고 있다. BYD는 이미 지난해 출하 대수의 약 8배에 해당하는 600대 이상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다. 앞으로 1~2년 안에 승용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사랑해요 교황님”...칠레 찾은 프란치스코



16일(현지시간) 남미 순방 중 칠레 산티아고를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파파모빌(교황 전용차)’을 타고 칠레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첫 남미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주일간 칠레와 페루를 방문하며 조국인 아르헨티나는 찾지 않을 예정이다. 산티아고/EPA연합뉴스

파산 위기 베네수엘라 “임산부에 월 70만 볼리바르” 여전한 복지 공수포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가 국민 생활고를 덜어주겠다고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연율 4000%가 넘는 초인플레이션 탓에 ‘백억이 무효’한 대타 정치적 속내가 다분해 오히려 대내외에서 비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연례 국정연설에서 임산부들에게 월 70만 볼리바르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3.83달러(약 4070원)에 불과하다. 아이를 출산하면 추가로 100만 볼리바르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달러로 환산하면 5.48달러밖에 안 된다.

CNN머니는 의약품과 식품 등 기초 생필품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인 탓에 월 3.83달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수출에서 얻은 재정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구입해왔는데 석유 생산량이 줄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아 기아가 늘었고 의

年4000% 물가상승에 실제가치 3.8달러 ‘언 발 오줌누기’
산유량 줄자 오일머니만 믿던 ‘포퓰리즘 복지’ 부메랑



료 장비 부족에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죽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오일머니만 믿고 무상교육·의료 서비스 등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시행하다 몰락한 전형으로 기록된다. 국제 유가 하락과, 이로 인한 산유량 감소로 경제난이 깊어졌다. S&P 글로벌블랙리스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산

유량은 하루 170만 배럴로 2002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채무불이행 규모는 12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널리 쓰이는 비공식 환율에 따르면 1달러 가치는 약 1만2000볼리바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약 4만1000볼리바르에서 네 배 이상 오른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정부의 공식 환율이 볼리바르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거의 쓰지 않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스티브 한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4000%가 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는 대중의 분노와 반발을 누그러뜨리고자 임산부 지원 등 공수포(空手票)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베네수엘

라의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50만 볼리바르의 ‘크리스마스 바우처(Christmas voucher)’를 400만 가구에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바우처 가치는 약 12달러였고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2.74달러에 불과하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간섭과 제재가 최악의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잘못된 대처, 갈팡질팡하는 정책, 만연한 부패가 3000만 베네수엘라 국민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임산부 지원에도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 임산부들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발행한 새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새 주민등록증은 마두로를 지지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주민이 새 등록증을 거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주혜 기자 winjh@

Zoom인아시아 | 저무는 흡연자 천국

인도네시아도 담뱃값 인상 행렬 동참

말레이시아·태국 이어10% 올려
稅收 확대, 국민건강 개선 기대
관련 산업 타격, 밀수 증가 우려

동남아시아 각국이 세수 부족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담배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도 연초부터 담배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고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흡연율이 높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 이상은 이슬람 교도인데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 기호품으로 담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이 약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흡연율이 높은 만큼 폐암 환자도 많아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흡연율을 낮추는 문제가 큰 과제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부터 담배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했다. 16개비가 들어 있는 한 갑이 전에는 평균 2만1000루피아(약 1600원)였다.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2000~3000루피아가량을 더 내야 한다.

만성적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는 이번 조치로 증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찍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2년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은 건강 증진과 증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2015년 말레이시아가 40%, 2017년 9월 태국이 30% 담배 가격을 인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담배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규약기름, 삼포에르나 등은 모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담배 기업이다. 담배 가격이 오르면 담배 소비량이 감소해 대기업뿐 아니라 담배 농가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담배 관련 산업 종사자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업계 간부는 인도네시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담배 산업에 세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이 밀수 시장 확대에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미 동남아시아 각국은 밀수된 불법 담배가 확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말레이시아 법인은 “홍성 효과 탓에 불법 담배 거래가 말레이시아 담배 시장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선진국에서는 흡연자가 줄고 있지만, 신흥국 국민은 여전히 담배를 저렴한 기호품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흡연자의 80%가 중·저소득 국가에 집중돼 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정책발언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화올림픽과 東北亞 중심국

한 나라가 비약적으로 도약하려 면 국민이 동의하는 뚜렷한 비전 이 있어야 한다. 이를 시대정신이라고도 한다. 민주화, 산업화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중요한 양대 비전이었고, 이를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해 뛰고 또 뛰오 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전은 무엇일까. 과거와 달리 다문화, 다양화 사회인 지금 꼭 집어 하나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비전 중 하나는 바로 동북아 물류, 에너지 및 관광 중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육로가 끊어져 있어 분단 이래로 지금까지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살아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물류는 해운을 통해, 일부는 항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원자재, 외국 상품의 대부분이 상당한 물류비용을 불기피하게 지급하며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또한 수출도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분단으로 인해 북한 및 비무장 지대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

만일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의 철도망과 시베리아의 대륙철도가 하나로 이어지고, 시베리아 가스관이 대한민국에 연결된다면 어떨까. 지난 60여 년간 보존되어 온 비무장 지대의 미개발 관광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한다면 어떨까. 물류비용, 에너지 비용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증대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유일의 미개발 보전 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관광 자원화 또한 폭발적 관광 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획기적 모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와 확고히 구축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동북아 및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북한과 더불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갈등을 비정치적 스포츠 교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꾸준히 노력한다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세계사의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남북은 9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 응원단뿐만 아니라 예술단, 참관단 등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북한 대표단 파견에 합의했다.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는 한편 이를 마중물로 삼아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해 앞으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방면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통한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시베리아 대륙철도 연결 등을 통한 동북아 물류, 에너지 및 관광 중심지로서의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미래이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평화올림픽 개최 및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민족의 생존과 경제적인 번영을 앞당기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연세대 특임교수
前 산업통상자원부2차관

연초부터 한·미 통상 현안이 심상치 않다.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업계의 관심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철강, 태양광, 세탁기 등 주요 품목에 쏠려 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작년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절차를 밟고 있다. 연간 120만 대 이상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다. 특히, 트럼프의 으름장으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와중에 뒤통수를 맞아서 우리 업계의 아픔은 더 크다.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모과장이 2006년 미국 회사 상무로 영입되면서 시작했다. 모 상무는 회장님께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제동을 걸면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건의한다. 통상 관료 출신으로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통상규범을 활용해 회장님의 마음을 사려 한 것이었다.

1라운드는 특허분쟁이었다. 2008년 LG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되었다.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정이 나자, 이를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당시 미 의회에서는 갖 타결된 한·미 FTA 비준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는데, 모 상무는 특허 패소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만 심어주었다.

2라운드는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이었다. 미국 회사는 2011년 상무부에 우리 기업들을 제소했고,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어 반덤핑·상계 관세가 LG전자

(13.2%), 삼성전자(9.29%)에 부과되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며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 초 WTO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 우리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았다.

지금 3라운드는 우회 수출 분쟁이다. 우리 기업들이 세탁기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자, 미국 회사는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제소하여 작년 초 최대 50%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편승하여 기세가 등등해져 오히려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세월이 흘러 모 회장님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소문이 자자하다.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를 쫓아다녔고,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 제조업 자문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종팔구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이다. 세탁기는 이미 정치 이슈가 되어 있어 미 행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WTO 제소뿐이다. 다만, 그 전에 미국 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프리미엄 제품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되도록 계속 요청하고, 우리 업계가 희망하는 쿼터량(TRQ)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세이프가드가 다른 품목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세탁기 공장이 1월부터 가동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LG 공장도 연내 준공해 최소한 2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잘 홍보해야 한다. 제품 경쟁력의 열세를 통상규범으로 만회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세탁기 분쟁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잘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알쏭달쏭

상감청자(象嵌靑瓷)

고려 상감청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청자(靑瓷)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상감에 대해 아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은 것 같다. 주변의 학생들로부터 바른 답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상감은 '象嵌'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코끼리 상', '산골짜기 감'이라고 훈독한다. 그런데 象은 자주 '像(형상 상)'과 통(通)하는 글자이므로 여기서는 '형상'이라

는 의미로 쓰였다. '嵌'은 깊은 산골짜기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깊은 산골짜기는 마치 동굴 속 같으므로 나중에는 동굴, 구멍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더 진화하여 구멍 혹은 어떤 틈 안에 뭔가를 새겨 넣거나 박아 넣는 행위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게 되었다. 장식무늬 파우를 박아 넣는다는 의미의 '삽입(嵌入)'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따라서 상감청자는 어떤 형상, 즉 무늬를 삽입하여 장식한 푸른 색 자기라는 뜻이다. 상감을 '相嵌' 혹은 '廂嵌'으로 쓴 경우도 있는데 이는 '相(서로 상, 형상 상)'이 像과 혼하게 통가하는 글자이기 때문이며, '廂(행랑 상)' 또한 '像'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통가한 글자이다. 순 우리말로로는 '꽃을 뿜', '봉박이' 등으로 표현한다고 하나 '봉박이'의 '봉' 또한 한자 '桴(막대기 봉)'이 아닌가 한다.

象嵌이나 像嵌이라는 말은 조선 정조 시대 무렵에야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정조 이전의 문헌 중에는 세종실록에 '廂嵌'이라는 용어가 한 번 보이는 외에 다른 용례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양강(鑲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鑲은 오늘날 한국에서는 '양'으로 읽지만 중국어 발음은 象, 像, 相, 廂 모두 모두 [상:xiang]이다. 세종 때 사용한 '廂'은 중국의 '鑲'에 대한 가차(假借)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象嵌은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말인 것 같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자모 평창 동계올림픽 2000원 기념지폐 '몸값 고공행진'... "이것도 투기 과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발행한 2000원권 지폐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행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2000원짜리 지폐가 서울 남대문 일대 화폐수집상점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액면가의 10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이달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지폐를 사거나 판다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지폐 시세는 2000원 낱장형

이 2만~2만5000원, 두 장이 붙어 있는 연결형은 5만 원 내외로 책정됐다. 이처럼 액면가의 10배 이상 가격에 시세가 형성됐음에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족족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지폐를 발행 당시 낱장형 8000원, 연결형 1만 5000원, 전지형 16만8000원에 판매했다. 당시 판매 가격에 비해서도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의 시세는 2~3배에 육박한다.

한은이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기념주화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기념지폐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에 더해 한정판과 최고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아이디 'pyth****'는 "이것도 투기 과열이니 거래 규제해야지. 정부는 기념지폐의 투기 현상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네이버 아이디 'lyjh****'는 "2000원 지폐는 두고두고 가치처럼 쟁기면 나중에 그 가치가 치솟을 듯. 한은이 1971년 발행한 기념주화도 액면가는 6만 원이지만 지금 시세가 4000만 원이라던데"라고 기대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웃렛 동대문점

현대백화점

H by H

유러피안 감성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정승호의 키워드 -부부의 대화와 싸움

별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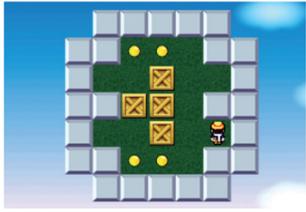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1부 차장



아내가 소코반을 했다. '소코반(Sokoban)'...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 나온 컴퓨터 게임이다.

는 비좁은 공간에 8-9년 놓여 있던 거다. 그 공간에 이르려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불박이 수납장이 있는, 그 공간보다는 넓지만 역시 비좁은 공간을 거쳐야 한다.

했는데 못 참은 아내가 혼자 저 큰일을 '거행'한 것이다. 아내는 177cm인 내 어깨에 이마가 닿고, 냉동고는 내 턱까지 닿았다.



소코반 게임 5단계. 짐짝 네 개를 아래 위 벽에 붙여야 한다.

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그날 아침 된가로 말쑥을 한 바탕하다 "닥쳐!" 비슷한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코끼리로 만든다! 왜 말쑥을 했는지는 벌써 까먹었다. 별것 아닌 걸로 그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닥쳐!" 라고 소리 지른 건 하루 내내 짝꿍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석연찮은 수의계약

2016년 가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서술시교육청 국정감사 때 일입니다. 이은재 새누리당(당시)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업무용 MS 오�피스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일괄 구매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며 욕박질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수의 계약을 통해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예컨대 메르세데스-벤츠 부품의 경우 공식딜러사인 한성자동차와 더글러스 효성 등에서 번갈아 가며 부품을 구입합니다.

객석

표 희선 효성 홍보실 대리



기자수첩

정수천 기업금융부/int1000@



그 걱정, 고이 간직해주세요

새로 이사 온 곳에서 만 2년이 넘었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한 모자(母子)와도 어인 2년이 됐다. 어머니는 아들 손을 잡고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고 타야 할 버스 번호를 불러준다.

네, "딱해라", "딸이 고생 많네" 등 들을 때마다 불평하고, 들을 때마다 속상한 몇 마디들이다. 하지만 딸이라는 것이 내뱉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갈 길 먼車사고 과실비율 투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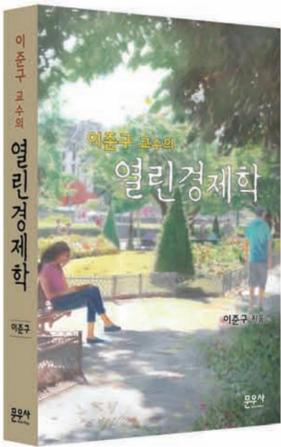
'이거 몇 대 몇이지?' 지난 연말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왼쪽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고 회전했지만 차 뒷부분이 부딪혔다. 각자 보험사를 부르고 정신없이 사고를 마무리한 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과실비율이 궁금해졌다.

했다. 또 통보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하기 전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심의 결정할 과실비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과실정보포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 새로 열었다.

이투데이 contact information table with columns for departments like 인사, 영업, 마케팅, etc.

● 도서출판 문우사 www.munu.co.kr

노벨 경제학상 연구 분야인 '행태경제이론'을 비롯하여 경제학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과 기본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경제학 입문서!



이준구 지음 | 584쪽 | 값 20,000원

이준구 교수의 열린경제학

경제학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함 길라잡이

이 책에 등장하는 수식은 단 두 개에 그치며 그림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책은 가장 쉽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기본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재미있는 경제학 공부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만들려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왜 그럴까?" 라는 지적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 주어야 비로소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싱가포르 다시 보기

싱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 분석 고길곤 지음 | 372쪽 | 값 15,000원

작지만 부유한 나라 싱가포르,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책은 싱가포르 사회가 발전시켜온 다양한 가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들을 각종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나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과 공유의 사업 전략 서비타이제이션

윤용·이주연·김연성 지음 | 152쪽 | 값 15,000원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시작된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은 제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

유휴·방치부동산 살릴 길 찾아 이희연·권영상·이동근·전의찬 지음 | 424쪽 | 값 30,000원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유휴·방치부동산의 살릴 길을 찾다

유휴·방치부동산이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가를 분석하고, 그것의 살릴 길을 찾기 위해 도시계획 분야, 도시설계 분야, 조경·생태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연구한 결과물이다.

“업무 혁신·조직 개선 내실 이제는 정책으로 성과내야”

3년 임기 마치고 퇴임하는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지난 3년간 경영학자로서 업무 혁신과 조직 개선 쪽으로 내실을 다지고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서 보람을 찾고 싶다.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 정책에 성과를 내고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중진공 설립 36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으로 중진공 사령탑을 맡았던 임채운(사진) 이사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학계로 복귀한다. 임 이사장은 16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퇴임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년은 실물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함께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접하면서 철학과 소신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펴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설립된 만큼 이제 내실을 다진 중진공이 도약할 때”라며 “앞으로도 중진공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베스트 파트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월 1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임 이사장은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17일 이임식을 끝으로 업무에서 물러난

현장 찾으면서 中企 고민 공감
중소 베스트 파트너 역할 기대
대학 돌아가 벤처 관련 강좌
정책자금 성과 기억에 남아

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돌아가는 그는 새 학기엔 주 전공인 마케팅 이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강좌도 개설해 공유하고 책도 쓸 계획이다.

임 이사장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 ‘정책자금 사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꼽았다.

그는 “3년간 매년 추경을 해 최대 사업인 정책자금을 원만히 집행할 수 있었으며 취임 직후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자금 신청을 온라인 접수로 받게 됐는데 신청이 폭주해 고객 수요 효율화를 고민하기도 했다”면서 “수출 마케팅 부분에서는 온라인 해외 직판 사업처



를 만들고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과 연결됐다”고 회고했다.

임 이사장은 이사장이 바뀌더라도 성과를 냈던 주요 사업들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그는 “기관장은 항상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한다”면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韓流, 일시적 유행 아닌 세계문화로 만들 것”

손경식 CJ 회장, 한국이미지상 ‘디딤돌상’ 수상

“한류를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생활과 마음속에 뿌리박히는 문화로 만들겠습니다.”

손경식(사진) CJ그룹 회장은 16일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서 디딤돌상을 수상한 CJ그룹의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CJ그룹은 한국 음식과 콘텐츠를 세계에 전파하는 한류의 첨병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 회장은 “문화도 하나의 산업 분야로 생각했다”며 “식품 사업 중심으로 그룹을 꾸리다 향후 멀티미디어 시대에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날 것이라는 판단으로 문화를 일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 문제로 촉발된 한한령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시에 중국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한국이미지상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대표 최정화·한국외대 교수)이 한국의 이미지를 외국에 알린 인물이나 사물, 단체에 주는 상이다. 올해는 CJ그룹이 디딤돌상을, 한국계 프랑스인 조아킵 손 포르제 프랑스 하원의원이 장검다리상을, 러시아 방송인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꽃돌상을 각각 수상했다.

조아킵 손 포르제 프랑스 하원의원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는 처음으로 하원의원이 된 인물로, 한불의원전선협회 회장으로 선출돼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에게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고대영 기자 kodae0@

I 인사

- ◆국방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담당관 차용국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장 신일현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은성
- ◆세종시교육청 <4급 승진> △소통담당관 권순오 △기획국장 김봉준 △교육훈련국장 도재운 △운영국장 이연보 △경영혁신담당관 김정숙 △교육훈련연구센터장 표정선
- ◆양산시 <4급 승진> △개발주택국장 김진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술 <4급 전보> △안전도시국장 이상욱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정철 조민행 조운미
- ◆한전원자력연료 △인사노무처장 오문교 △건설기술실장 김승진
-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획국장 김봉준 △교육훈련국장 도재운 △운영국장 이연보 △경영혁신담당관 김정숙 △교육훈련연구센터장 표정선
- ◆조세금융신문 △편집국장 신승훈 △전무이사 겸 미디어출판국장 양학섭 △콘텐츠사업국장 이지현 △콘텐츠사업국 부국장 윤봉섭

미국인 35% “트럼프 집권 첫째 F학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첫째 성적은 낙제 수준인 ‘F학점’으로 미국인들이 평가했다.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틱코와 모닝컨설트가 4~5일 미국 유권자 1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F학점을 부여했다. C학점은 14%, D학점은 11%로 C학점 이하가 60%에 달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A 또는 B학점을 매긴 응답자는 전체의 34%에 그쳤다.

부음

- ▲김창기(동양건설컨설팅 전무이사)·영자(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경심(국립공원 북한산 우이분소장)·효정(강동한방병원 근무)·용기(서울경희병원한의원장)·승기(건원엔지니어링 이사)씨 부친상 = 16일, 전남구례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61-783-4848
- ▲강훈일씨 별세, 재병(제주신보 경제부장 겸 제주도기자협회장)·재정·순정·봉화·봉선씨 부친상 = 15일, 제주부민장

정치 성향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 지지자의 72%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 또는 B학점을 부여했으며 D나 F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79%가 D 또는 F학점을 매겼고 A나 B학점을 준 사람은 8%에 불과했다. 무당파는 45%가 D나 F학점을, 27%가 A나 B학점을 각각 부여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 레식장, 발인 18일, 064-742-5000
- ▲황정택(원예협동조합 근무)·인택(C&D건설 부장)·현택(KBS 프로덕션 2기자)씨 모친상, 김용상(원광정보예과 행정실장)씨 장모상 = 16일, 동이리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11시, 063-843-9204
- ▲홍세정씨 별세, 주영보·영경·영란씨 모친상, 조양협·김선조(전 대우그룹 이사)·박찬규(사업)씨 장모상 =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30분, 02-2258-5940

이투데이 신년 기획을 보고... 다양한 기획 돋보였으나 부족한 현장성 아쉬워

박재영 이투데이 독자권익위원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기획물 너무 많아 집중 안돼
他 신문 보도된 내용이라도
심층 분석해서 보도했으면...



이투데이는 1월 2일부터 신년 특집으로 신문 제작의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 DQ(디지털 인성지수)교육 캠페인 전개, 기후-에너지회의의 서울 행사, CSR 필름페스티벌 이벤트 개최 등 역할 사업들을 소개했다. 새 제작 시스템에 의한 신문 지면은 활자가 크고 또렷해져서 성공적으로 보인다. 나머지 세 가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 강화하는 사업으로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투데이가 신문지면 안팎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2018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1월 10일 열린 올해 첫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신년호의 기후금융, AI시대, DQ 관련 기획들이 호평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여젠다로서 이투데이가 선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10여 개의 크고 작은 기획들이 지면마다 빛을 내고 있어 기자들이 각별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선, 기획물이 많아 좋았지만 그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코리아 리스 트러처’는 1면 머릿기사로 크게 보도된 만큼 올해의 대표 어젠다로 알았는 데도 이후의 지면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 기획물의 수를 줄이고 기획물 간에

화를 실감나게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외부필진 확보는 이투데이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 특히 경제, 산업,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는데 전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기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취합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이투데이가 신뢰하는 전문가로 목록화한 다음, 기자들의 평소 취재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 기고를 부탁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일을 전담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를 편집국에 임명하면 더 좋겠다.

산적인 과제에 비해 언제나 기사는 적다. 다행히, 이투데이는 기사가 필요하면 수시로 채용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을 붙잡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간 독자권익위원회의 제안이 많이 수용되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 예컨대, 한자 사용은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기사 제목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제목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단어를 하더라도 어차피 본문에서 한자를 병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의 마지막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 “차분히 읽어보면 이투데이에 도움 되는 정보가 많고 배울 게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투데이 구성원들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게 권익위의 결론이었다.



아이돌그룹 엑소(EXO)의 히트곡 ‘파워(Power)’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분수쇼의 주제곡으로 나왔다.

아이돌그룹 엑소 히트곡 ‘파워’ 두바이분수쇼 주제곡으로

국내 가수 노래 최초 선정

아이돌그룹 엑소(EXO)의 히트곡 ‘파워(Power)’가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분수쇼의 주제곡으로 등장했다. 두바이 분수쇼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 호텔, 스페인의 몬주익과 함께

세계 3대 분수쇼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두바이 분수는 축구장 18개 규모인 버즈호수에 설치된 대형 인공 분수로 분수 규모만 축구장 3개에 육박하며 45층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한국 대중가수의 음악이 두바이 분수쇼의 주제곡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중가수의 음악이 두바이 분수쇼의 주제곡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영 기자 ijay0403@

음악이다.

두바이 분수쇼에는 그간 아랍의 전통 음악을 비롯해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셀린 디온, 안드레아 보첼리 등 세계적인 팝 가수들의 음악이 주로 쓰였다.

UAE는 아랍권에서도 특히 한류 열풍이 높은 곳이다.
이재영 기자 ijay0403@

한국IR협의회 새 회장에 김원대 前거래소 본부장 선임

한국IR협의회는 사원총회를 통해 김원대(사진)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을 제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1982년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2018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87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한 그는 2007년 청산결제실 부장, 2010년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민호 기자 minor3032@

파생상품시장본부 부장보를 거쳤다. 2012년 6월에는 세계적인 파생상품 전문지 FOW가 선정한 ‘최근 30년간 세계 파생상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김 회장은 2014년 3월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을, 같은 해 6월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민호 기자 minor3032@

한국노동연구원장에 배규식 씨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6일 제2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에 배규식(60·사진)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을 역임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 금융그룹

KB증권의 1주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KB증권을 찾아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1년,
언제나 당신께 힘이 되는 든든한
투자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평생 투자 파트너
*b KB 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5503호(2017년12월21일)

*b KB 증권

미래 먹거리 찾는 금융권 CEO

은행과 분리경영...외풍 차단 위해 親盧인사 영입하기도



올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취임 이후 이뤄진 첫 인사 키워드는 지주-은행 간 경영 분리로 압축됐다. 윤 회장은 지주 및 계열사 데이터분석 조직의 협업 강화, 그룹 자본시장 부문 경쟁력 강화, 사회공헌·기업문화-인재육성 기능 강화, 지주-계열사 간 임원 겸직체계 조정에 방점을 뒀다.

KB금융은 자주와 은행의 겸직체제로 운영됐던 리스크관리총괄임원(CRO)과 글로벌전략총괄임원(CGSO)은 겸직을 해체했다. 김기현 IT총괄임원(CITO)은 은행 IT그룹대표 겸직에서 IT자회사인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자리를 겸직하게 됐다. 또 KB증권의 세일즈&트레이딩(Sales & Trading) 담당 각자대표인 윤경은 사장이 자본시장부부장을 겸직해 은행-증권의 자본시장 부문을 통합 관리한다. 윤 회장이 행장을 겸임하던 시절 업무를 분담했던 지주 사장직은 폐지됐다. 지주와 은행

회사	CEO	이력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64)	KB국민은행 은행장
KB국민은행	허인 회장(58)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회장
KB국민카드	이동철 사장(57)	KB금융지주 전략총괄 CSO 부사장
KB생명보험	허정수 사장(59)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회장
KB저축은행	신홍섭 사장(55)	KB국민은행 동부지역본부장
KB데이터시스템	김기현 사장(64)	KB금융지주 부사장
KB자산운용	이현승 사장(53)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KB증권	윤경은 사장(53)	현대증권 사장
	전병조 사장(55)	KB투자증권 사장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58)	KB금융지주 부사장
KB캐피탈	박지우 사장(62)	KB국민은행 부회장
KB부동산신탁	정순일 사장(61)	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 본부장
KB인베스트먼트	박종선 사장(58)	KB국민은행 부천지역본부장
KB신용정보	김해경 사장(58)	KB신용정보 카드채권 특수사업담당 부사장

행 경영을 분리한다는 윤 회장의 의지가 드러났다. 윤 회장은 이번에 7개 계열사 대표를 유입시키고, 4개 계열사 대표를 새로 선정했다. 윤 회장은 '1기 경영' 출발 당시 조직 안정을 위해 계열사 CEO 대부분을 유입시켰다. 이번 인사는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장악력을 키우면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B자산운용의 경우엔 공동대표를 추가로 영입해 이현승 현대자산운용 대표를 선정했다. 우선 KB카드 사장은 그룹 내 M&A(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진 이동철 KB금융지주 부사장을 선정했다. KB생명보험 사장엔 허정수 국민은행 부회장을 내정했다. KB저축은행 대표에는 국민은행에서 홍보를 책임졌던 신홍섭 전무를 선정했다.

이번 인사 후속조치로 눈에 띄는 점은 윤 회장이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영입했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부산상고 출신이면서 국민은행 부회장, KB부동산신탁 사장, 노조위원장 등을 지냈던 김경민 전 사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낙하산'으로 받아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안철우 기자 acw@

그룹 경영리더 첫 선발... 외부人材 수혈도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2일 '2018년 신한 경영포럼'에서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한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를 구체화했다. 조 회장은 이날 말 그룹사별 경영리더를 최초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룹사 주요 임원과 부장은 경영성 인재로 전원 포함된다. 예비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성 후보군인 셈이다. 기업금융(IB)과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은 가능성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존의 전문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 인재로 분류,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 CEO

회사	CEO	이력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62)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은행	위성호 회장(61)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사장(61)	신한금융투자회사 부사장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59)	신한금융투자회사 부사장
제주은행	이동태 회장(62)	신한은행 부회장, 기업부부장
신한생명	이병찬 사장(64)	BNP파리바카드프 손해보험 상근감사
신한BIP파리바자산운용	민정기 사장(60)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
신한캐피탈	설영오 사장(60)	신한아타스 대표이사
신한저축은행	김영표 사장(59)	신한은행 리태일부부장, 영입추진그룹 부회장
신한아타스	이신기 사장(63)	신한금융투자회사 부사장

지난해 연말에 단행한 임원 인사도 사업정비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역점을 뒀다. 신한금융 중장기 성장 전략인 '2020프로젝트'와 변화된 자본운용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성과창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자본운용'이다. 신한은행 재무팀장, 자금시장본부장을 역임하며 그룹 내 재무 전문가로 꼽히는 장동기 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용병 회장이 취임한 이후 자본운용 전략이 과거보다 과감해진 신한금융은 향후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해외진출 등 인오가닉(Inorganic) 전략을 통해 그룹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그룹투자 운용사업 부문'에는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이 수장으로 내정됐다. 동양증권 출신인 김 부사장은 2012년 신한금융투자로 자리를 옮긴 외부 출신이다. 보수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에서 외부 출신이 그룹사업부장으로 내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은행 부문에서는 WM부문에 눈에 띈다. 이창구 그룹 WM사업부부장(부회장보)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WM사업부장, IPS 본부장을 역임한 김성우 본부장이 부회장보로 신규 추천됐다. 앞서 WM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위성호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안철우 기자 acw@

BROADWAY MUSICAL
★★★★★
"It's good-looking, good-feeling, good-time show in every way"
-The Star Ledger-

Music by Elvis Presley
Book by Joe DiPietro
Orchestrations by Stephen Oremus

All Shook Up
Musical

뮤지컬 올숙업

2017.11.24 ~ 2018.2.11
Art Center 흥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순호영, 허성, 정대현(B.A.P), 진이라, 김우준(김성기), 임은영, 김나은, 장대용, 안유진, 구우분, 박정아, 박한근, 김지희, 제이민, 이예은, 정가희, 이종원, 김태규, 진호(펜타곤), 과나을, 서신애 외

2017년 11월 16일 오후 2시, 2차 티켓오픈!

쇼경영진 디지털 금융·소비자 중심 영업 합심



KEB하나은행은 통합 3년차를 맞아 하나금융지주 내 전 경영진이 디지털금융과 소비자 중심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태 지주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 3년차인 은행의 PMI(사후적 통합)를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비 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이 같은 포부는 지난해 연말인사와 조직개편에도 확인됐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디지털 금융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부회장으로 2명을 승진시키는 등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리스크 관리 그룹의 황효상 전무가 동일 그룹 부회장으로,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의 지성규 행장이 글로벌사업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금융R&D본부와 미래금융전략부, 글로벌 디지털센터도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금융사업단, 디지털 마케팅부, 기업디지털사업부와 빅데이터구축센터도

하나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 CEO

회사	CEO	이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67)	전 하나은행 은행장
하나은행	합영주 회장(63)	전 하나은행 총칭영업그룹 부회장
하나금융투자	이진국 사장(63)	전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하나캐피탈	윤규선 사장(55)	전 시애틀타 대표이사
하나생명	권호준 사장(62)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회장
하나카드	정수진 사장(64)	전 하나저축은행 사장
하나저축은행	황종섭 사장(61)	전 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 부회장

새롭게 만들었다. 주요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하나금융그룹 내 시너지 강화를 위해 WM(자산관리) 그룹과 경영관리 그룹을 신설하고 IB(투자은행) 그룹을 확대-개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진국 전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

비은행 부문이 타 지주사 대비 약한 하나금융은 카드,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순익 향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황종섭 하나저축은행 사장, 권호준 하나생명 사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등이 제2금융권을 이끌고 있는 CEO들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內訌 딛고 화합으로 종합금융그룹 도약 다져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흉역을 지른 우리은행은 내부 화합형 인사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우리은행은 주요 임원 자리에 전신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들을 고루 자리에 앉혔다.

손태승 행장은 올해 경영 목표를 '내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그룹 도약'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른 5대 경영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확보 △현직 맞춤형 영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차별화된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선도 △서비스금융 지원 및 혁신기업 투자를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완수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공격적인 목표인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부 계파 대립을 해소하고 조직 다지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우리은행 및 주요 계열사 CEO

회사	CEO	이력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59)	전 우리은행 글로벌부문 부부장
우리카드	정원재 사장(59)	전 우리은행 영업지원 부부장

지난해 말 임원 인사에서도 우리은행은 출신 계파를 고루 안배하는 화합형 인사를 단행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2인자 자리인 부부장(국내부문 겸 개인그룹 집행부회장,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회장) 2명을 각각 한일, 상업 출신으로 채웠다. 장안호 국내 분야 부부장은 한일은행 출신, 조운행 영업지원 분야 부부장은 상업은행 출신이다.

본래 우리은행은 부문장이 3명인데 손태승 행장이 당분간은 이전에 본인이 맡아왔던 글로벌 부문을 직접 관리한다. 이로써 현재 우리은행은 행장 1인, 부부장 2인, 그룹장 8인 체제인데,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 계파가 비등하게 분포돼 있다.

“先導 금융지주” 올해도 뜨겁다

“수익 20% 이상 해외서” 글로벌 진출 강화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진 행장은 기업은행 역대 4번째의 내부 출신 수장이다.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28일에도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고 영업점 방문을 이어간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소통 경영’을 중요시 한다.

김 행장은 내부에서 ‘월급쟁이의 신화’로 불린다. 경북 의성 출신인 그는 1985년 기업은행에 입사한 후 전략기획부장, 카드마케팅부장, 기업금융센터장, 경영전략그룹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

김 행장은 기업은행이 앞으로 나아갈 모델로 ‘동반자 금융’을 제시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해왔다.

IBK기업은행 및 주요 계열사 CEO

회사	CEO	이력
IBK기업은행	김도진 회장(60)	기업은행 부행장
IBK캐피탈	이상진 대표(59)	기업은행 부행장
IBK투자증권	김영규 대표(58)	기업은행 부행장
IBK연금보험	장주성 대표(60)	기업은행 부행장
IBK자산운용	시석중 대표(57)	기업은행 부행장
IBK저축은행	김성미 대표(59)	기업은행 부행장
IBK시스템	서형근 대표(58)	기업은행 부행장
IBK신용정보	이호형 대표(53)	금융위원회 국장

동반자 금융의 핵심은 중소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금융지원과 10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상반기 인사에도 그의 철학이 반영됐다. 김 행장은 창업벤처지원단을 정식 부서로 승격시켰다.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WM사업부는 본부장급 부서로 격상했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조직은 전무이사 직속으로 변경해 내부통제 조직을 강화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부산·경남 자산규모 최대... 리스크 관리 집중

BNK 금융지주

지방금융지주 가운데 자산규모가 가장 큰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과거 BNK금융지주는 지주회장이 부산은행장을 겸임했지만 CEO에게 과도한 힘이 쏠린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겸임제를 해제했다. 엘시티 특혜대출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회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사달을 겪은 뒤야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지완 지주 회장은 지주 역할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BNK금융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장부가격이나 실적과 같은 BNK금융의 기업가치와 비교하면 시장의 평가가

BNK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 CEO

회사	CEO	이력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73)	하나금융지주 상임고문
부산은행	빈대인 회장(59)	부산은행 부행장
경남은행	손교덕 회장(59)	경남은행 부행장
BNK캐피탈	이두호 사장(61)	부산은행 부행장
BNK투자증권	조광식 사장(60)	KS인베스트먼트 대표
BNK저축은행	강동주 사장(59)	BNK저축은행 부사장
BNK자산운용	이윤학 사장(53)	NH투자증권 100세대 연구소장

매우 낮다”며 “지배구조 등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성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 시스템’은 지역 대표 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유지하되 업무 프로세스와 IT 시스템 표준화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규준 기자 abc84@

‘소형 점포’ 효과적 운영 등 內實 다지기 주력

JB 금융지주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2013년 7월 취임 이후 JB우리카페탈을 시작으로 광주은행, JB자산운용 등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그룹의 당치를 키워 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주사 회장과 광주은행장을 겸직해 왔다. 하지만 작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송중욱 수석부행장이 선임 행장으로 내정되면서 창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자행 출신 행장이 선임됐다. 임용택 전복은행 행장은 지난해 연임이 확정돼 4번째 전복은행을 이끌고 있다. 김

JB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 CEO

회사	CEO	이력
JB금융지주	김한 회장(65)	전복은행장
전복은행	임용택 회장(67)	JB우리카페탈 대표이사
광주은행	송중욱 회장(57)	광주은행 부행장, 영업전략본부 겸 미래금융본부

한 JB금융 회장은 지난해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를 없애는 타 시중은행과 달리 ‘소형 점포’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수도권 진출에 집중했다.

JB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인 광주은행과 전복은행은 글로벌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최근 글로벌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강소성 무석시에 사무소를 열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디지털금융·해외사업 강화로 서비스 차별화

DGB금융지주

DGB금융지주는 국내 지주사 중 유일하게 회장이 행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곳이다. 다른 지방 금융지주 사들이 지난해부터 회장-행장 분리로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DGB금융지주는 회장에게 권력이 과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박인규 회장은 지주 회장과 이사회 의장, 대구은행장과 이사회 의장 등 4개 자리를 겸직하고 있다. 박 회장이 현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권력 견제 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퇴진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깨끗하게 경영 비전을 내세운다.

박 회장은 올해 DGB금융지주의 목표를 디지털

DGB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 CEO

회사	CEO	이력
DGB금융지주	박인규 회장 겸 대구은행 및 대구은행 부행장	전 대구은행 영업지원본부장
DGB생명	김경환 사장(58)	전 대구은행 부행장
DGB캐피탈	이재영 사장(57)	전 GE캐피탈 부사장
DGB자산운용	이윤규 사장(63)	전 DGB자산운용 대표이사

금융과 해외사업 강화로 잡았다. 그는 올해 경영목표로 △수익 창출을 위한 상품과 고객서비스의 차별적 경쟁력 강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디지털 금융 선도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외 성장동력 창출 등을 들었다.

DGB금융지주는 산하에 대구은행, DGB생명, DGB캐피탈, DGB자산운용 등 계열사를 두고 있다. DGB생명은 16일 신입 대표이사에 김경환 전 대구은행 준법감사인(부행장보)을 선임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올 손익목표 1兆... 농협銀 2020년 ‘국내 3대 은행’으로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금융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해 2015년부터 지주를 이끌고 있다. 이번 금융지주 인사에서 부사장 자리에 이강진 전 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이 선임돼 함께 농협금융을 이끈다.

4대 농협은행장으로 취임한 이대훈 행장은 지역농협과 농협은행, 상호금융까지 농협 내 금융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정통 ‘농협맨’이다. 이 행장은 올해 목표로 손익 7800억 원 달성 과 ‘디딤뱅크’ 진입을 위한 발판 마련을 꼽았다. 취임하자마자 현장을 돌며 스킵 경영행보도 이어나가고 있다.

이 행장은 1960년 경기 포천 출생으로 1985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농협은행에서 프로젝트금융부장과 경기영업본부장, 서

농협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 CEO

회사	CEO	이력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67)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NH농협은행	이대훈 회장(59)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60)	NH농협은행 부행장
NH농협신협	이윤배 사장(60)	NH농협생명 전략총괄부사장
NH투자증권	김원규 사장(59)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상근부회장
NH-Amund자산운용	박규희 사장(60)	NH농협은행 부행장
NH농협캐피탈	고태순 사장(61)	NH농협캐피탈 부사장
NH저축은행	최상록 사장(61)	농협은행 부행장

울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를 맡아왔다. 내부에서 ‘영업통’으로 불리는 이 행장은 2015-2016년 농협은행의 경기-서울 영업본부장을 지내면서 하위권이었던 실적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영업추진력을 보였다.

농협금융은 올해 손익목표를 1조 원으로 잡았다.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안에서 시

너지를 낼 계열사 CEO는 신규 선임된 오병관 NH농협신협은행 사장과 연임된 서기봉 NH농협생명보험 사장과 고태순 NH캐피탈 사장이다. 농협금융 내 대표적인 전략동으로 불리는 오병관 농협신보 사장은 앞으로 농협 신보의 외형을 키우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농협 신보는 ‘올원뱅크-NH금융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에 연임된 서기봉 농협신보 사장은 198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후 농협은행 영업금융부장, 은행 영업추진본부장 등을 거쳤다. 서 사장은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을 높여 NH농협생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연임된 고태순 NH캐피탈 사장은 금융과 농업을 결합한 상품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공략해 글로벌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2017.11.29~2018.11.14)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핫팩스, 영풍문고, 만디엔루니스 및 어학시험 수수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3 주소 등 정보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인증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유형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든 비트코인, 세계大戰 일어나도 貨幣價値 보존

블록체인 혁명

가상화폐(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가장 잘 설명한 모델로 통한다. 최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아니었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처럼 인기와 열풍을 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대중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으로 이뤄진 콘텐츠 기술 쉽게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도 기업 주가에 가치 쏠리던 과거와는 달리 블록체인 시대엔 가상화폐에 가치 집중

가상화폐 시장 시총 1년새 3333% 성장 현재 알려진 코인 1446개... 계속 늘어나 업계 "대부분 사라질 것... 옥석 가려내야"

◇전 세계인, 비트코인에 열광하다 =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1년 뒤인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란 인물에 의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게 설계했다. 금처럼 총공급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총발행량은 2100만 비트로 현재까지 1680만 BTC(1월 16일 기준)가 생성됐다.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있다. 블록체인 이전까지 가상화폐는 카드포인트, 게임머니, 싸이월드 도토리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은 카드회사와 게임회사 등 발행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가치가 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반면 비트코인은 특정기관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가치가 보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론상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보존



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 한 대라도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을 복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존 최고의 해커 집단조차 해킹을 성공하지 못했을 만큼 보안성도 뛰어나다.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연관성 =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란 기술로 이뤄진 콘텐츠라 볼 수 있다. 어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디지털 자산 또는 금융 거래를 위한 지급결제 수단이라면,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쉽도록 유용한 도구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형 가상화폐의 경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 힘든 구조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선 기반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더리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가격은 블록체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전문가들은 이제까지의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국내 1호 비트코인 서적 '넥스트머니 비트코인' 저자로 유명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표상돼야 하나에 대한 답은 인터넷시대의 가치가 애플리케이션 단(塊)에 모인 반면, 블록체인 시대의 가치는 그 밑단인 프로토콜 단에 가치가

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이코노미(경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통신규약-플랫폼) 단에 가치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팩(Fat) 프로토콜 이론'이라고 한다. 인터넷 시대에 애플리케이션 단의 가치가 IT기업들의 주식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기업이 없으니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가치로 나타난다.

◇우선 성장세- 옥석 가려야 = 가상화폐는 초창기에 비해 가치를 빠르게 인정받고 있다. 가상화폐 통계사이트 코인마켓랩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연초 183억 달러(19조4675억 원)에서 6101억 달러(649조243억 원)로 3333% 성장했다. 일일 거래 규모도 1억6254만 달러(1729억 원)에서 333억 달러(35조4245억 원)로 204배 증가했다. 현재 알려진 코인(가상화폐 약칭)이 1446개로 새 코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구분별 코인 증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현재 개발된 코인들 중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90% 이상의 ICO 프로젝트가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인 발행을 미끼로 한 사기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인 발행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이유로 수백억 원 이상의 각종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문가들조차 알 수 없는 신종 코인이 늘어났다"며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검증된 가상화폐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글 쓰는 순서>

1. 블록체인에 열광하는 이유
2.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불을 지피다
3. 블록체인에 빠진 기업들
4. 블록체인 스타트업 ICO 자금수혈 열풍
5. 블록체인 제동 건 정부, 세계적 기업 성장 막는다

"제2 비트코인, 가즈아~"... 차별화 전략 앞세운 대체코인들

전 세계 1400여 종이 넘는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 코빗, 업비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클래식, 리플, 모네로, 퀴텀, 비트코인캐시 등 40여 종에 이른다. 이미 잘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 약칭)들은 익명성, 거래 속도 등 차별화된 전략을 앞세워 '제2의 비트코인'을 꿈꾸고 있다.

△대시(DASH)=익명거래-실시간 이체확인 대시는 '익명성'을 내세운 코인이다. 당초 '다크 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불법 사이트 등과 연관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름을 바꿨다. 코인 명칭을 바꾸면서 익명 거래, 실시간 이체 확인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수의

거래를 묶어 '마스터노드'를 통해 쉬운 뒤 거래 내역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한다.

△라이트코인(LTC)=거래속도 비트코인의 4배 라이트코인은 2011년 10월 구글 출신 찰리 리가 개발했다.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개선해 빠른 전송 속도 등을 갖췄다. 블록 생성시간이 비트코인보다 짧아 거래속도(평균 2분 30초)가 4배가량 빠르다. 더불어 최종 발행량도 8499만 개로 비트코인(2100만 개)의 4배 수준이다.

△이더리움클래식(ETC)=해킹 전 상태 복구 이더리움클래식은 지난해 발생한 이더리움 해킹 사건 이후 사고 발생 이전 상태로 복구된 버전의 코인이다. 도난된 이더리움이 포함돼 있다. 이더리움과 달리 최대 발행량이 제한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리플(XRP)=국제 결제 서비스 이용 기대 리플 코인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결제 네트워크 '리플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내부 화폐다. 리플 코인을 통해 각 나라의 화폐를 수초 내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P2P 개념을 환전 거래에 적용해 비용과 시간을 줄여줘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네로(XMR)=거래정보 추적 불가능 모네로는 모든 거래에서 보낸 사람, 금액, 수신자 등의 정보를 숨겨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화폐다. 익명성을 완벽히 보장해 거래내역 추적을 통한 거래 경로, 주소, 수량 파악이 불가능하다.

△퀴텀(QTUM)=비트코인-이더리움 장점 결합 퀴텀은 퀴텀 재단에서 개발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적 장점을 결합한 대체코인이다. 퀴텀 코인은 이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기본 화폐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블록 생성 권한을 갖고, 블록을 생성하면 보상으로 퀴텀 코인을 받는다. 퀴텀 재단은 알리페이 분석가 출신인 패트릭 다이를 중심으로 텐센트, 바이두, 나스닥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비트코인캐시(BCH)=지난해 비트코인서 분화 비트코인캐시는 지난해 8월 1일 하드포크 이후 비트코인에서 분화된 코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 블록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거래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 채굴자가 2~8MB로 블록 크기를 정할 수 있다. 분화 이후 불안정한 가격 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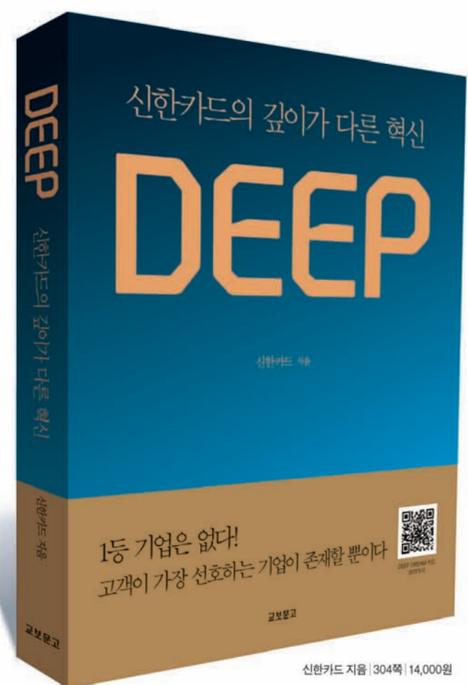


4차산업혁명의 시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카드업계 1등기업 신한카드가 공개하는 금융의 미래

- 2,200만 고객 데이터라는 압도적 빅데이터
- 업계 최초로 설립한 빅데이터센터
- IoT의 시작점 카넥티드 카 커머스
- 생체인증 핀테크로 열리는 카드 없는 사회
-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예방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사용자 개개인에 딱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깊이가 다른 혁신의 철학 'DEEP'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



신한카드 지움 | 304쪽 | 14,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100세시대 인생지킴이 '리스크 컨설턴트(RC)'

건강·미래·재산... 고객과 함께 크는 '종합금융 설계사'

우리나라가 고령시대에 진입하면서 노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 리스크 컨설턴트(RC)가 주목 받고 있다. 삼성화재 RC는 고객에게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전문가다. 고객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인생주기에 따른 자금 설계를 해주고 고객의 건강과 가족력을 바탕으로 적합한 보험을 설계해준다. 고객의 주택이나 건물, 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컨설팅하는 '위험 컨설팅 전문가'이기도 하다.

삼성화재 RC는 노력만큼 소득을 늘릴 수 있다.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업 기반이 탄탄해지고, 역량이 높으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RC는 주체적으로 업무 스케줄을 짤 수 있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RC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까지도 일을 할 수 있어 노후 생활에 경제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RC는 사실상 '1인 사업가'이면서도 다른 사업과 달리 초기 자본투자에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삼성화재 측은 강조했다.

한편 RC는 자신의 업무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삼성화재의 '기업승계제도'는 우수 RC가 자녀에게 고객관리를 넘겨주는 제도다.

삼성화재는 RC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생애설계(세금, 부동산, 의학, 보상) 컨설팅, 금융상품 전문과정 등 1년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뿐만 아



삼성화재 RC가 태블릿PC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화재

니라 사내보험전문대학(SSU), 성균관대와 연계한 삼성화재 MBA과정 등의 교육도 지원한다.

그밖에 RC는 경조사비, 조의물품, 명절선물 등 삼성화재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육아지원비, 건강검진, 영업활동을 위한 관측비 등도 지원받는다. 특히 삼성화재는 우수 RC에게 리프레시 패키지 등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이 같은 배경에 힘입어 삼성화재의 RC들은 보험회사 설계사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순해보험협회가 선정한 '2017 우수인증설계사' 명단에 삼성화재 RC 5979명이 이름을 올렸다. 생명·손해보험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우) 매월 계속받는 암치료보험 1704

매월 100만~200만원 보험료 지급... 癌 완치까지 든든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우) 매월 계속받는 암치료보험 1704'는 암에 걸렸을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매월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암에 걸리면 1년간 매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이후로도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 1년 단위로 보험금 지급을 연장한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암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재발·전이 되더라도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최장 100세까지 매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0세부터 65세까지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갱신형은 20년 단위로 100세까지 자동 갱신된다. 이밖에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등 암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보장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20년 만기 전가납 갱신형 기본플랜에 가입할 경우 월 2만 원 수준이다.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겪을 경우 면제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우) 메리츠 매월 계속받는 암치료보험 1704'는 100세까지 수차례 암이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존 상품들과의 차별점"이라며 "암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



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매월 계속받는 암치료보험1704'가 출시 3개월간 누적 판매 건수 4만 건을 돌파한 이후에도 월 평균 5000건 가량의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엔 출시 7개월 만에 판매액 6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최근 의학기술 발전으로 암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이런 경향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최적으로 충족시키는 상품이"라고 분석했다.



무배당 신한당뇨엔드배달건강보험

당뇨병 진단땐 '가입금의 두 배' 합병증 걸려도 '두 배'

당뇨병 진단 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 진단 시 진단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신한생명 '무배당 신한당뇨엔드배달건강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당뇨병에 특화된 건강보험으로 진단과 합병증, 건강관리까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 상품에서 당뇨병은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내용(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에 따르면 당뇨 보장 개시일 이후 당뇨병 진단 시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당뇨 관리 자금을 지원한다. 또 당뇨 보장 개시일 이후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가입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즉 가입금액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이 진단급여금으로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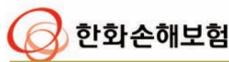
반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지 않고 10년 만기 시점에 생존해 있으면 100만 원의 건강관리 자금이 지원된다.

암 진단, 말기신부전증진단 정기특약 등의 경우도 당뇨 발생 후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진단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전립선·자궁·유방암에 대해서는 당뇨병 진단과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의 진단금을 보장한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등 소액암도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100만 원의 진단금 지급된다.



이 상품은 10년마다 갱신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주계약 및 특약 1000만 원, 10년 만기 전가납 가입 등 기준으로 월 2만7880원 수준이다.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핑거앤'과 제휴를 맺고 '혈당관리 수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만성질환인 당뇨는 발생 확률도 높고 치료기간 또한 오래 걸려 치료비 부담이 높은 질병"이라며 "신한당뇨엔드배달건강보험은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당뇨병, 합병증, 건강관리 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무배당 하안미소플러스 치아보험 1705

보험료 낮추고, 가입폭 넓히고, 횡수제한 없앤 '통큰 보장'

기존 치아보험에서 가입 폭을 넓히고 보장을 강화한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하안미소플러스 치아보험 1705'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기본계약을 일반상해사망에서 영구치 치수치료비로 변경해 보장을 강화하고 납입보험료를 낮췄다.

임플란트, 브리지 등의 시술에 대해서는 보장 횡수, 치아 개수의 제한을 없애고 영구치 보철치료비도 최고 150만 원으로 유지해 치아 치료의 보장부분을 확대했다.

영구치 보존치료비 특약을 분리해 영구치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장금액을 최대 40만 원으로 늘렸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6~65세로 확대해 가입 폭을 넓혔다. 80% 이상 일반상해 후유장애 발생 시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더불어 백내장, 편도선 절제술 등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 수술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와우이식수술비 보장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이목구비 보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또 질병을 앓던 병력자의 경우에도 가입이 편리해졌다. 당뇨의 경우 당화혈색소 7% 이하로 인슐린 투여가 없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이 없는 경우와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부전 등의 경우 입원치료를 마친 뒤 1년이 경과(합병증·후유증 없는 경우)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1종(세 만기형)과 2종(연 만기 갱신형)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1종의 납입기간은 5년 단위로 20년까지, 2종은 전가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최대 70세까지 보장된다.

우원주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파트 파트장은 "연령 확대를 통한 치료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목구비 질환에 대한 보장영역을 확대해 한층 경쟁력있게 설계된 상품"이라며 "이를 통해 치료치료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ww.119medical.co.kr

즐거워 치과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날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한빌딩 7.8층)

‘지주사 규제 강화’ 바람 불자 인적분할 2년 만에 1→9건

20대 국회 관련법 개정안 상정
대주주 ‘과세 이연’ 올해 말 日沒
SK케미칼·현대산업개발·효성 등
현물출자 앞둔 지주사의 자회사 주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등록률
인적분할	1	6	9	50.0%
단순/물적분할	9	14	11	-21.4%
합계	10	20	20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최근 기업들의 인적분할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가증권시장 내 합병 공시는 2015년 44건에서 2017년 40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분할 공시는 2015년 10건에서 2020건으로 두 배 늘었다. 이 가운데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공시는 2015년 1건에서 2017년 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롯데호텔그룹과 비상장 6사의 분할·합병,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기업들의 잇단 인적분할 결정은 지주회사들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출범한 20대 국회에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한 다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자(손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 지주회사 지분보

건 판단 기준 강화,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활용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시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항(조세특례제한법 38조 2항)도 올해 말 일몰된다. 통상 대주주는 인적분할시 사업회사의 주식을 경영권 강화에 쓸 목적으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맞교환)한다. 대주주는 최초 주식 취득 시점에서 현물출자 때까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과세이연 조항에 따라 나중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면 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적분할과 재상장은 평균 6개월 전후가 소요된다”며 “또 대주주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재상장 시점 1개월 이후 가능해, 올해 1분기가 과세이연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적분할에 나선 기업이 늘어난 만큼, 현물출

자를 앞둔 지주회사의 사업회사에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현물출자시 대주주에게 유리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해 사업회사 가치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이에 따라 인적분할을 결정한 SK케미칼, 현대산업개발, 효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SK케미칼은 보유 자사주를 매각·소각해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 지분이 전무하다. 따라서 향후 대주주 보유 케미칼 지분 22.4%의 현물출자가 필수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6월 12일 재상장 이후 사업회사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이 7.0%에 불과해 올해 하반기 현물출자가 예상된다. 효성그룹도 5.26%에 불과한 4개 사업회사(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지분율을 감안하면 7월 13일 재상장 이후 연말까지 현물출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정 기자 mjkim@

국제 유가 3년여 만에 최고 원유펀드 수익률 평균 19%

(최근 6개월 기준)

서부텍사스유 70달러 눈앞
전문가들 “유가 상승 여력 충분”
관련 펀드 최고 24% 수익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원유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2월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63.7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장중 64.81달러까지 치솟아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브렌트유 3월물 가격은 배럴당 69.1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역시 전날 심리적 저항선인 70달러를 돌파(70.26달러)해 증가 기준으로 2014년 2014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브렌트유는 채굴 비용 등의 차이로 WTI보다 통상 배럴당 3~4달러 높게 책정된다. 지난달 29일 60달러를 돌파한 WTI는 상승세를 거듭해 70달러를 목표로 두게 됐고, 지난해 10월 말 일일감치 60달러를 돌파한 브렌트유는 70달러대 굳히기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트는 국제유가 덕에 원유에 매인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나란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펀드평가사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인버스 펀드 제외)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15일 기준)은 14.04%였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하반기인 것을 감안해 최근 6개월로 기간을 늘리면 원유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9.04%에 달한다. 원유 펀드 중 ‘삼성KODEXWTI 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펀드’가 24.15%로 가장 높은 수익률(3개월)을 기록했고, 삼성WTI원유특별자산(23.13%),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19.36%), KB북미생산유전고배당특별자산(18.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수급 측면을 따져봤을 때 국제유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원유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은 줄어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WTI 가격이 조만간 7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민호 기자 minho3032@

전기차 성장에 청신호 켜진 2차전지株

美 전기차 월간 사상 최대 판매
삼성SDI 급속 충전 배터리 기대감도
‘中 보조금 축소’ 국내 업체엔 호재

2차전지 관련주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상승세에 재진입할지 주목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코프로(7.12%), 상아프론테크(6.93%), 피엔이솔루션(6.38%), 일진머티리얼즈(6.33%), 엘앤에프(6.17%), 후성(6.11%), 한은시스템(4.49%) 등 2차전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소폭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갇혔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며 2차전지주의 주가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전기차 시장조사업체 인사이드EV(InsideEV)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03만9988대였다. 2016년 같은 기간 67만

2921대보다 54.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은 120만 대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달 15일 삼성SDI가 ‘2018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대용량 급속충전 배터리를 공개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회사가 선보인 배터리는 20분 충전만으로 최대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이 2021년까지 양산되면 2차전지 소재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각국의 엇갈린 세제 혜택도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2500~7500달러(약 213만~798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 폐지한다는 목표로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2차전지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전지 업체들의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민호 기자 minori3032@

SK증권 주파수

5년 연속 1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5년 연속 1위
모바일은 역시 SK증권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스마트폰 MTS 부문 1위, 2017.04.20

고객센터 1599-8245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주파수

기업주식담당자 주담과 Q&A / 정산애강

“태광에 편입 後 매년 성장...50兆 도시재생 수혜주”

3분기 이어 4분기 호실적 전망
소방용 배관 자재 40% 점유율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 준비



코스닥 상장기업 정산애강이 지난해 3분기 여남서 프라이즈에 이어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태광실업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정부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수혜주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적 상승을 기반으로 주가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회사 관계자에게 사업 현황을 물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590억 원과 영업이익 9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 94.1% 증가한 수치다. 실적 향상의 이유는 최근 주택 건설경기의 호조와 태광실업 편입 후 공장 통합 이전에 따른 생산 효율 증가와 원가 인하를 위한 노력이 결과를 낸 덕분이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소방용 배관 자재 시장에서도 4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도시재생사업 수혜주라는 인식이 있다. 그 이유는 “정산애강은 주택의 급수와 급탕 및 난방에 쓰이는 플라스틱 배관 자재와 스프링클러용 플라스틱 파이프 연결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정부 국정 과제다. 이 사업은 노후 주택 해결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 활성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태광실업 회장의 아들과 딸이 정산애강 경영 일선에 나섰다. 이로 인한 변화는 “박주환 부사장은 그룹의 전략기획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 채널을 맡고 있다. 또한 에어로젤코리아 박주영 사장은 주주 자격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태광실업그룹에 편입된 2014년 7월 이후 회사 실적은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존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 무차입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 현재 영위하는 사업은 국내 건설 경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SK하이닉스와 120억 규모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 계약

에이디테크놀로지 실적 '퀀텀점프' 예고

2016년 매출의 52% 수준... 작년 하반기부터 물량 증가 16나노 핀펫공정 도입...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 성장 가속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에이디테크놀로지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실적 퀀텀점프를 예고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디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로부터 120억 원 규모의 메모리 컨트롤러 IC에 대한 PO(구매주문서)를 받았다. 이는 2016년 매출액 226억 원 대비 52.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5월 4일까지다.

이로써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2016년 온기 매출액을 뛰어넘는 PO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SK하이닉스와 지난해 11월 36억 원 규모의 양산

공급 계약을 맺은 뒤, 12월 각각 66억 원, 80억 원 규모의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제품의 납품 기간은 올해 2월, 4월, 5월까지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5월까지 납품 예정 양산 PO만 약 350억 원을 받았고, 추가 PO를 감안해서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약 500억 원 달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2014년 685억 원, 2015년 358억 원, 2016년 227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연속 수주가 매출 물량 확대와 함께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앞

에이디테크놀로지 추가 추이 (단위: 원)



두고 있는 등 사업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업계 최초 첨단미세공정인 16나노 핀펫공정 도입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데 이어 저전력 기반의 데이터 고속처리 및 안정성을 높인 메모리 컨트롤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SK하이닉스와의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리포트를 통해 "에이디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낸드 컨트롤러 개발에 성공했다"며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낸드 컨트롤러의 성능 문제로 인해 낸드 사업은 약점으로 평가받아왔으나, 동사의 칩 개발로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에이디테크놀로지의 2018년 매출액은 11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좋은 성능의 낸드 컨트롤러 개발로 인해 SK하이닉스로부터 지속적인 칩 개발 수주를 받고 있어 꾸준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준석 에이디테크놀로지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 및 제품 다변화를 이끌어 낸드플래시 산업 성장 호기를 당사의 퀀텀점프 기반으로 삼아 올해를 시작으로 역대 최고의 성장 역사를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글로벌 1위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 토플드 "바이오 인식 보안 전인차로"

토플드가 자회사 씨엔비텍(CNB Technology)을 통해 세계 바이오 인식 및 보안 기업인 지케이테크(ZKTec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씨엔비텍은 토플드가 100% 지분을 보유한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기존 토플드인태셔널이 지난해 12월 상호를 변경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토플드와 씨엔비텍은 지케이테크의 한국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제품 유통 및 판매부터 브랜드 관리까지 총

토플드 추가 추이 (단위: 원)



(SECON 2018)에서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이며 공식적으로 사업을 출범할 계획이다.

서문동군 토플드 대표이사는 "최신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인

지회사 씨엔비텍, 지케이테크 韓 사업 총괄 맡아 3월 '세계보안엑스포'서 신제품 출시·공식 출범

팔하며 지케이테크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지케이테크는 지문, 얼굴, 지정맥, 손바닥, 홍채 등 바이오 인식 원천기술을 보유한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

중국에 본사를 둔 지케이테크는 50여 개국 이상에서 지사를 운영 중이며, 180여 개 국가에 걸친 고객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영상 감시, 통합관제 시스템 등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3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세계보안엑스포 2018

식 기술을 토대로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지케이테크와 씨엔비텍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토플드의 사업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토플드의 사업 성장과 국내 바이오 인식 보안시장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글로벌 1위 브랜드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케이테크가 한국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알파홀딩스 '放熱 소재', 中 전기차 1위 BYD 탄다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 그대로

알파홀딩스 계열사 알파머티리얼즈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전 계열사에 납품이 가능한 공급업체 등록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BYD는 중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약 24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 기업이다. 최근 전기버스 및 모노레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알파홀딩스가 BYD에 공급하게 되는

알파홀딩스 추가 추이 (단위: 원)



방열 소재는 차량용 LED, IGBT(절연 게이트 양극형 트랜지스터) 등에 서멀 컴파운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조건의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방열 소재는 경쟁사 제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져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을 극복했다"면서 "이는 장시간 사용해도 경화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다는 점과 성능 또한 기존 경쟁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BYD측에서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홀딩스의 방열 소재는 향후 BYD가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의 차량용 LED를 필두로 IGBT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IGBT는 방열 소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핵심 소재로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류를 모터 구동상에 필요한 교류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시장 세계 1위의 BYD에 협력회사가 됨으로써 진입 장벽이 높은 세계 자동차용 방열시장에서 자사의 기술이 인정을 받게 됐다"면서 "BYD 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열소재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넥스트BT '황제 침향원' 작년 매출 100억 돌파

피로회복·소화불량 등 효과

넥스트BT는 주력 제품 중 하나인 '황제 침향원'이 지난해 100억 원 주문 매출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론칭 이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누적 매출은 약 680억 원이다.

회사 측은 "제품 론칭 3년 차인 2014년 단일 제품으로 판매량 50억 원을 넘은 이후 매년 25%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며 "이 제품은 소비자 재구매율이 높은

넥스트BT 추가 추이 (단위: 원)



인기 제품으로, 건강식품 특성상 입소문을 타면서 신규 소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제 한의사와 함께 개발한 '황제 침향원'은 넥스트BT의 대표 제품이다. 공진 원리를 근간으로 하며 세계 3대 향 중 하나로 알려진 '침향'을 주원료로 총 18가지 약재를 배합해 만든 건강식품이다. '침향'은 과거 왕이나 왕족들이 나뉠 기운을 몰아내고 혈 자리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 귀한 약재로 꼽히고 있다.

특히 피로회복과 소화불량, 식욕부진, 기관지전신, 기억력 장애 등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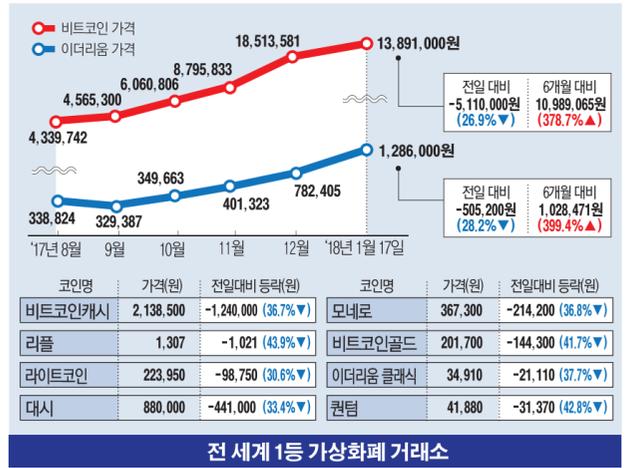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고가의 공진단을 누구나 쉽게 접하는 보양식으로 대중화하는데 성공하면서 브랜드 파워도 자연스럽게 생겼다"며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에는 기존 유통채널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을 입점 등 신규 판매처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해 제품 판매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넥스트BT는 국내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을 갖춘 네추럴&P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빗썸 지수 (2018년 1월 17일, 08:00, K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문화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58을 위한 노래에는 숨표가 있다

PART1. 고문신 신고 달렸던 개미들에게 축배를
PART2. 58개미 "그랜 그랬지" - 먹고살 만해졌을 때 우리는 붓집을 뒀다
PART3. 58개미 인생 5가지 이슈 8가지 키워드
PART4. 우리 때는 말이야... - 58년생 그들의 청춘사업
PART5. 철옹성 같은 개미 모임에는 '도래'의 운명적 집착이 있다
PART6. 우리, 환갑상은 꼭 봐야
PART7. 58 감성 - 58'의 일그러진 영웅들
PART8. 청바지와 기타 - 다시 돌아온 戊戌年!

제2직업
새해 주목해야 할 제2직업 키워드 5가지

올해 주목해야 할 사회 현상 중 하나는 은퇴 세대의 폭발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자 인력시장으로 몰리면서 평생 겪었던 경쟁 속으로 다시 뛰어들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니어에게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됐다. 새롭게 떠오른 무술년 새해 우리는 새로운 직업을 위해 어떤 분야를 주목해야 할까?

브라보 산책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서

자작나무는 예로부터 쓸모가 많은 나무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래도 왜 인기 있는지 묻는다면 수많은 쓸모보다 자작나무의 매력은 역시 외형이 아닐까. 흰웃을 차려주고 곱하지 않음은 마치 고고한 선비를 연상시킨다. 흰 눈이라도 자작나무 숲에 내리면 몽환적인 풍경이 압도적이다. 자작나무 숲 여행은 겨울에 하려고 추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라보와 만난 사람

하나의 소망이 인생의 전부처럼...
비발바를라' 울로 시니어로 돌아온 배우 박민환

붉은 산수로 기기를 깨다
세계 화단이 주목하는 작가, 이세현

예술인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한 멈추지 않는 여정
세월을 노래하는 가객 최백호

입맛 돌우는 매콤달콤 닭볶음탕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냄비에 넣고 감자, 양파, 당근 등을 양념장과 버무려 자박하게 끓여 먹는 닭볶음탕. 줄이면 줄이수록 맛있어지는 마법이 일어난다. 잘 발라낸 닭고기를 국물에 촉촉하게 적신 다음 입으로 가져가면 밥 한 공기하는 거뜨하다. 종로 골목에서 닭볶음탕으로 5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개림'을 소개한다.

1월의 맛

스모츠 스타
'소나기 편지'의 대명사 유명우

1980년대 복싱은 한국의 3대 스포츠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인기 스포츠였다. 복싱 경기가 있는 날이면 팬들은 TV가 있는 다방이나 민화방에 삼삼오오 모여 응원했고 한국 선수기 우승하는 날이면 다방 주인이 무료로 커피를 돌리는 소소한 이벤트(?)도 열렸다. 1980년대를 풍미한 복싱 영웅 유명우를 그의 체육관에서 만났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박종섭·송윤·이경숙·이현숙·장영희
빛에 대하여...

부치지 못한 편지

윤정모 소설가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